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2010년대 한국 출판계의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찬준

2010년대 한국 출판계의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김 홍 중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박 찬 준

박찬준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김백영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임동균 _____ (인)

위 원 _____ 김홍중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독서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2010년대 중반 '인문학 신드롬'과 함께 한국 출판계에서 일어난 '지대넓얕 돌풍'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를 고찰한다. 저술 경험과 수상 경험이 없는 무명 작가의 인문 교양서는 어떤 요인들의 기여를 통해 역대 국내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 가장 많이 오른 네 번째 도서 시리즈가 될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사회적 실천'으로 독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상황적 형성물'로서의 베스트셀러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하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을 분석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의 방법론을 사용해 '지대넓얕' 현상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II장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장르 분석을 통해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2010년대~현재를 각각 시 문학의 시대, 자기계발의 시대, 인문학의 시대로 명명하고 국내 베스트셀러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지대넓얕' 시리즈가 탄생한 시점의 베스트셀러 장르 구성은 1980년대보다는 실용서 위주였던 1999년~2009년의 구성과 더 유사했다.

III장에서는 '지대넓얕' 시리즈가 같은 분야의 타 도서들과 비교해 가지는 특징적인 강점들에 관해 텍스트의 구성과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리뷰 분석을 통해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시험으로 상징되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정 분량 이상의 학습량을 소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밀도가 높은 텍스트 매체인 학습 참고서는 여전히 타 매체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학습서의 형식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단순하게 구조화'함으로써 '지대넓얕'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채사장의 관점에서 선별된 지식 덕분에 가능했다. 생산된 지식 중 어떤 품목을 어떤 동선에 위치한 매대에 놓을지는 지식 가게의 사장인 저자 채사장이 선택한다.

'지대넓얕' 시리즈의 마케팅은 인문학적 교양을 갖춤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가장

쉽게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제안하는 일관된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도서명과 같이 솔직하고 직관적인 언어로 표현되었다.

도서 구매자 리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적 분석의 경우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 빈도 분석에서는 7위에 해당했던 형용사 '쉽다'가 연결 중심성 순위에서는 도서명에 등장하는 '얕다'와 '넓다' 등의 형용사들보다도 상위인 '1위'로 올라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도서 구매자 리뷰들을 살펴본 결과 당면한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서 발생한 독자들의 니즈는 공감형 문구 등을 통해 눈높이가 맞춰진 상태로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독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 우세한 자기계발 담론하 인문 교양의 자본화가 진행된 사회 문화적 배경에 적절히 부합하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인문 교양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변화와 '지대넓얕' 현상의 대두가 갖는 연관성에 관해 고찰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사유와 성찰보다는 실용성과 더 큰 연관을 가지는 자기계발 담론이 크게 우세해진 상황에서 탄생했다.

2010년 이후 정부 주도의 대중인문학 제도화 단계를 거치며 기업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인문학은 넓고 얕은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화된 '스펙'이자 '문화 자본'으로 변모했다. 인문 분야의 독서는 자본 획득의 유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가 되었다.

동시에 대중 인문학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인문학 소비 시장에는 "큐레이팅의 시대"가 대두했다. '지대넓얕' 시리즈의 저자인 '지식 가게 사장' 채사장은 넓은 인문학적 지식을 한두 권의 책으로 선별해 주는 큐레이터로 기능했다. 출판사 역시 인문서 시장에서 '큐레이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문학 열풍으로 증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술 경력이 있는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능력이 뛰어나다면 원고를 출간해줄 유인이 커졌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성공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가는 미디어의 영향력도 일조했다. 출간 전 채사장이 진행하던 동명의 '지식 교양' 팟캐스트는 예비 독자의 확보를 통한 도서의 출간과 초기 마케팅을 도왔고 도서의 성공은 다시 팟캐스트 청취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는 채사장이 출연한 여러 방송들과 함께 '지대넓얕' 현상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인문학 신드롬과

인문 교양의 자본화,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영향력,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 직관적이고 솔직한 마케팅 전략,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 충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적 사슬의 연쇄를 통해 “우리 시대 대표 인문 교양서”가 될 수 있었다.

동시에 ‘지대넓얕’ 시리즈는 일종의 인문학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자들이 암기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위험성을 가진다. 도구적 성찰성은 인문학 신드롬의 정점에서 탄생한 ‘지대넓얕’ 현상뿐 아니라 독서율의 하락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깊은 사유와 성찰의 배제는 민주 사회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지대넓얕, 베스트셀러, 인문학, 인문학 열풍, 독서 경향, 독서사회학
학 번 : 2020-28218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질문 1
2. 선행연구 검토 3
1) 독서 관련 연구 3
2) 베스트셀러 연구 6
3. 이론적 배경 9
1)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독서 9
2) 상황적 형성물로서의 베스트셀러 11
4. 연구 대상 및 방법 14
1) 연구 대상과 자료 14
2) 연구 방법 16

II.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 변화 경향 19
1. 시 문학의 시대: 1980년대 23
2. 자기계발의 시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27
3. 인문학의 시대: 2010년대~현재 32

III. 베스트셀러 형성 과정의 3차원적 분석 37
1.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 37
1) 학습서 형식의 구성 37
2) 단순하게 구조화 40
2. 직관적이고 솔직한 마케팅 45
1) 지식수준이 들통날까 봐 두려운 당신에게 46
2) 한 권으로 편안하게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50
3.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 충족 55
1) ‘쉽게’ 얻는 넓고 얕은 지식 55
2) 지적 대화를 위한 ‘친절한’ 조력자 62

IV. 인문학 베스트셀러의 사회 문화적 배경 67
1. 인문학 신드롬과 ‘지대넓얕’ 68
1) ‘지식 가게 사장’ 채사장 68
2) ‘지식 교양’ 팟캐스트 ‘지대넓얕’ 75
2. 인문 교양의 자본화 79
1) ‘스펙’으로서의 인문학 79
2) 문화 자본으로서의 ‘기초 상식’ 83
3.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86

V.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3

표 목차

[표 1]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전권 16
[표 2] ‘지대넓얕’ 리뷰 출현 빈도 상위 30개 형용사..... 56~57
[표 3] ‘지대넓얕’ 리뷰 연결 중심성 값 상위 30개 형용사 58

그림 목차

[그림 1 · 2 · 3]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 변화 추이 22
[그림 4 · 5 · 6]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 변화 추이(소설, 에세이 제외) 22
[그림 7] 1980년대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26
[그림 8 · 9 · 10] 3대 서점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비중 변화 추이.... 29
[그림 11] 1999~2009년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 31
[그림 12] ‘인문학’ 키워드 뉴스 건수 트렌드..... 34
[그림 13] 2010~2021년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 35
[그림 14·15] ‘지대넓얕’ 시리즈의 본문 구성 이미지..... 38
[그림 16] 2015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본문 미리보기 39
[그림 17] ‘지대넓얕’ 제로 편 “이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의 범위” 53
[그림 18] ‘지대넓얕’ 시리즈 리뷰 Word Cloud(형용사) 56
[그림 19] ‘지대넓얕’ 시리즈 리뷰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형용사) 57
[그림 20] 교보문고 역대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67
[그림 21]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 경로 86

I. 서론

1. 연구 배경과 질문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CEO들이 인문 고전을 읽고 인문학 예능을 표방하는 강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등[1] 대중들이 인문학을 이전보다 친숙한 방식으로 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판계에도 적용되어 특히 2010년 이후 수많은 인문 교양 서적들과 인문 분야에 속한 다양한 베스트셀러들이 탄생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방증 된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독서율은 2013년 이래로 하락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는 매 조사 때마다 역대 최하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성인 독서율 50% 선이 무너졌다.[2] 이런 상황에서 2014년 말 출간된 '인문학 도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하 '지대넓얕')』 시리즈는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3대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알라딘, YES24가 공개한 역대 베스트셀러들의 도서명을 조사한 결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2015년 두 권이 동시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 총 16번 오르며 역대 베스트셀러에 가장 많이 오른 네 번째 도서 시리즈에 해당하였다. 이에 힘입어『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데뷔작'이었던 저자 채사장 역시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 가장 많이 집계된 작가 10위에 오를 수 있었다.[3]

누적 300만 부가 판매되었다는 '지대넓얕'은[4] 직장인들의 독서 모임은

---

[1] 국민일보. "사람들은 왜 팬데믹 시대에 인문학 예능을 볼까". 2022년 12월 16일. 2022년 7월 7일 검색.

[2] 국민일보. "성인 독서율 50% 무너졌다… 둘 중 한 명 1년간 책 1권도 안 읽어". 2022년 1월 16일. 2022년 3월 28일 검색.

[3] 매출액 기준 3대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알라딘, YES24가 공개한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도서 목록에 오른 도서명, 저자명을 조사해 Voyant Tools를 통해 파악하였다.

[4] 조선일보. ""교양서 300만부 팔았는데 소설은 세 번 퇴짜 맞았죠"". 2022년 1월 8일. 2022년 3월 30일 검색.

물론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2017)’ 과 같은 유사한 콘셉트의 TV 프로그램들을 낳는 등[5]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는 2007년 이후 10년 동안 4년제 대학의 인문학 학과 수 및 입학 정원이 자연과학 및 공학 학과들과 달리 크게 줄어들었으며[6] 2017년 이후 정부의 R&D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문 사회 분야의 R&D 예산이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2021년 1.2%로 감소했다는 사실[7] 등을 들어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이처럼 ‘독서의 위기’와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일어난 ‘지대넓얕 돌풍’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지대넓얕’ 시리즈의 저자인 채사장은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한 무라카미 하루키, 1991년 『개미』로 데뷔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와 같이 오랜 기간 저술 활동을 해 온 작가가 아니며, 1993년 데뷔했지만 2016년 『채식주의자』(한강, 2007)가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한강 작가의 경우처럼 수상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작가도 아니다.

소규모 출판사[8]에서 출간되었고 그동안 책을 집필해 온 유명 작가도 아니며,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수상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명 작가의 인문 도서가 2010년대 중반 출간돼 해당 분야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특이 현상은 사회학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설정해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① ‘독서의 위기’와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출간된 신인 작가의 데뷔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은 어떤 요인들의 기여를 통해 가능했는가?

② 출판계에서의 ‘지대넓얕’ 현상이 담지하는 201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③ ‘지대넓얕’ 돌풍이라는 특이 현상이 내포하는 사회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

[5]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책 소개 中

[6] 교수신문. “인문학, 이럴줄 알았다”. 2019년 4월 25일. 2022년 3월 28일 검색.

[7] 중앙일보. “정부 R&D 예산 중 인문학은 1%…"연구생 월 30만원도 못준다"”. 2022년 3월 24일. 2022년 7월 7일 검색.

[8] 동아일보. “신생 강소출판사의 약진, 베스트셀러 법칙을 바꾼다”. 2015년 3월 31일. 2022년 6월 9일 검색.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출간돼 시대상을 반영하며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서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선정하고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문 교양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독서 관련 연구

독서 과학의 학문적인 체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의 그레이와 해리스 등이 미국과 영국의 독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을 시초로 독서사회학(The Sociology of Reading)을 포함하는 독서 과학의 학문적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변우열, 2016).

윌리엄 S. 그레이는 독서의 연구 영역을 독서사회학, 독서생리학 및 독서심리학, 독서교육학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독서사회학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대중 독자의 독서 동기와 독서 경향, 출판물의 내용, 독자 선호도, 독서 효과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Gray, 1953; Gray, 1954). 유사하게 시어도어 L. 해리스 역시 독서의 연구 영역을 독서사회학, 독서심리학, 독서생리학, 독서교육학의 4가지로 구분했다. 이중 독서사회학은 독서를 사회적인 과정으로 보고 독서 자료의 특징, 독자 선호도 및 독서 태도, 독서 효과 등을 다룬다(Harris, Otto & Barrett, 1969; Harris et al., 1970).

국내의 경우도 대학들의 교육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는 크게 독서사회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방법학, 독서자료학, 그리고 출판학 등의 독서 관련 인접과학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독서사회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독서와 가치관', '독서매체와 환경', '독서와 문화' 등이 있었다(변우열, 2016).

결과적으로 독서사회학은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수준에서 독자들이 무엇을, 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 대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독서에 관한 국내의 사회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학적 입장을 포함하는

학제적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경우, 독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분석의 수준에 따라 미시적인 인지심리학적 연구들과 중간 수준의 독서교육적 연구들, 그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제도적 · 정책적 측면의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독서 연구에 있어 주류적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독서를 심리적 인지 과정으로 보고 매체 간 비교 등을 통해 뇌 과학적으로 독서 매체가 가지는 특성들을 미시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들을 올렸다(Wolf, 2019). 가령 특정한 종류의 매체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학습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Subrahmanyam et al., 2013), 피험자들은 디지털 읽기를 선호하지만 내용의 이해도 및 기억 회상 측면에서는 인쇄물이 낫다는 등의 연구 결과(Dahan Golan, Barzillai & Katzir, 2018)가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독서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독서사회학의 관점에서 독자를 바라볼 때는 심리적인 측면 외에도 독자가 딛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고려되어야만 한다(허경은, 2000).

두 번째로 독서 연구에 있어 주류적 흐름을 형성해 온 것은 독서를 교육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독서교육연구'였다(박인기, 2014). 주로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독서 치료' 등 독서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강정찬, 2015; 유영미, 2015 외 다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독서의 필요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학생과 성인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거시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독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양적 방법만을 통해 진행되는 탓에(고용남 · 이명우, 2011), 이와 같은 한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관심사가 성인 읽기와 인터넷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도 확장되고 있지만(김혜정, 2016) 여전히 독서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기술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가령 김수혜(2019)는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 중년층의 문해력 격차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해 교육수준, 직업 지위, 청소년기 가정 내 책 보유 정도 등이 한국 중년층의 독서 활동과 가지는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양적 방법만을 사용한 탓에 문해력 격차를 야기한 시대 상황적 배경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독서율과 문해력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된 여러 연구들은 독서를 정책 의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정책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독서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들(김정숙, 2015; 박인기, 2006; 정일권 · 조윤경 · 채영길, 2014 외 다수)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독서학점부과제도 및 독서인증제(박정길, 2006; 방미영 · 이건웅, 2020)와 같은 세부적인 제도 및 정책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상기한 연구들은 관련 기관이 제도적 ·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독서 양태를 잉태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 여러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이창희, 2014)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독서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판 연구에서도 역사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으며 독서 연구를 통해 사회학적 유형화나 일반화를 이룰 수 있다(김성은, 2017).

국제독서협회(IRA)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읽기 연구의 주제로 '동기'가 부각되었으며 '사회 문화적 읽기 연구'가 확대되었다(김혜정, 2016). 그러나 기존의 독서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독자들의 독서 동기 파악에 제약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대중 독자들이 어떤 동기 또는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시작하며,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 왜 독서 자체를 비선호하는지 등에 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 현상이 내포하는 거시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자 분석의 병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김성우 · 엄기호(2020)는 현재를 "개개인의 리터러시가 넓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얄팍해지는 상황, 깊이를 담보하지 못한 채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한다(김성우 · 엄기호, 2020:163).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 신드롬과 함께 탄생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가 어떠한 사회 문화적 지형 위에서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인문서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게 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서를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독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인 행위로 보고, 텍스트의 구성과 출판사의 마케팅,

독자 등 독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미시적 수용자 연구나 거시적 담론 분석에 그치지 않고 통합적 접근을 취해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2) 베스트셀러 연구

베스트셀러는 "인기 있는 문학 취향과 판단의 지표 역할을 하는, 특정 기간 동안 판매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서"로 정의할 수 있지만[9] "집계 기관과 방식이 다양한 관계로 단일한 표준 목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엄혜진, 2016). 가령 영풍문고는 '판매량'에 의거해 베스트셀러를 산정하나, 교보문고의 경우는 별도의 집계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알라딘 역시 세일즈포인트라는 자사만의 판매지수를 만들어 베스트셀러를 집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표본으로 추출된 책 소매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베스트셀러를 집계한다(박홍재 · 김선남, 2006).

그럼에도 베스트셀러는 "독서 대중들의 욕망의 성격과 당대인들의 집단적인 사고사 및 정신적 풍속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기능한다는 점(안선희, 2009:11)에서 사회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베스트셀러 현상에 관해 수행된 사회학적 선행 연구들이 부족한 관계로, 베스트셀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역시 학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트렌드 분석 연구와 형성 요인 분석 연구, 국내와 국외의 연구로 구분해 시도해 보았다.

베스트셀러에 관한 연구들 중 가장 기초적인 흐름은 베스트셀러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는 '트렌드 분석' 형태의 연구들이다(김무엽, 2015; 조도현,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의 장르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문학이나 인문학 등과 같이 특정 장르에 국한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김기태, 2015; 박치완 · 박성준, 2016).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1990년대 말 이후의 베스트셀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약 2015년을 전후로 더는 트렌드 분석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

[9]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est seller". Encyclopedia Britannica, 13 Oct. 2011, https://www.britannica.com/topic/best-seller. Accessed 10 April 2022.

지식』 시리즈가 탄생한 베스트셀러 지형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교보문고가 국내 최초로 베스트셀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2021년의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망라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더불어 베스트셀러를 대상으로 하는 상기의 트렌드 분석 연구들은 주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점인 교보문고, 또는 교보문고와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교보문고, 알라딘과 함께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3대 대형 서점이자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YES24[10]의 베스트셀러 목록 역시 고려해 국내 베스트셀러 변화 경향을 살폈다.

두 번째로 다수를 차지하는 베스트셀러 연구의 흐름은 베스트셀러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요인 분석' 연구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베스트셀러 도서들의 내용 분석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의 연구 기법을 사용해 베스트셀러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박찬익, 2000; 이임자, 1993).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시리즈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베스트셀러 도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텍스트 분석이나 심리학적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김충남(2007)은 저술 경험이 많지 않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장편소설 『향수』(파트리크 쥐스킨트, 1985)를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된 현상에 주목해 소설 『향수』에 나타난 베스트셀러의 조건들을 분석한다. 해당 도서의 성공 원인을 작품 내외적 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주로 텍스트의 구성과 콘텐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출판사의 전략에 관해서는 약 한 페이지 분량의 작은 지면만을 할애하였다.

또한 오미영 · 박찬빈 · 고영건(2010)은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시크릿』(론다 번, 2006)을 통해 긍정적 환상 신드롬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심리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2007년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로 촉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비록

[10] 컨슈머포스트. "[Top 10 Korea] 국내 서점업계 매출액 1위는 교보문고". 2021년 3월 22일. 2022년 4월 5일 검색.

경제적 불황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분명할 지라도, 이 글의 내용은 긍정적 환상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인 분석에 국한하고자 한다."(오미영 · 박찬빈 · 고영건, 2010:127)

연구자는 이처럼 '시크릿 신드롬'을 다루는 부분에서 해당 연구가 심리학적인 접근을 취하는 연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베스트셀러 도서를 매개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때는 거시적인 상황적 맥락, 대중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출판사의 전략 등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독서 경향은 대중의 자발성뿐 아니라 거대 출판사라는 문화 기업에 의해 전략적으로 홍보되고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김혜정, 2010).

국외의 Colbjornsen(2014) 역시 사례 연구를 통해 베스트셀러 『50가지 그림자』 트릴로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며 베스트셀러는 "단순히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는 도서가 아니라 문화적 논리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도서는 시장 정보 체제(Market information regimes), 디지털 형태의 북 토크(Digital book talk), 전자책 베스트셀러 목록(The eBook bestseller list), 크로스오버(Fifty Shades as a crossover) 등의 요인들에 힘입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E. L. 제임스, 2011)를 비롯한 『50가지 그림자』 시리즈가 노르웨이에서 거둔 성공을 Gyldendal 출판사의 마케팅, 유통 등의 측면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50가지 그림자 시리즈가 출간되기까지의 출판 지형 분석은 없으며, 실제로 도서를 선택하고 구매한 독자들의 독서 동기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 외에도 영미권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을 포함해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 시리즈가 반영하는 문화적 배경 등을 탐구한 연구(Whited, 2002) 등이 존재한다. 가령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청소년들의 독서 동기를 조사한 한 선행 연구(Stuart, 2006)는 청소년들이 『해리 포터』 시리즈를 읽은 이유로 흥미, 도전, 모험 등을, 읽지 않은 이유로는 도서의 길이, 책의 난이도,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 없음 등을 선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베스트셀러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나 국내의 사회학적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베스트셀러 도서로서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

역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1]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의 경우 거시적인 담론 분석과 함께 이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나(박치완 · 박성준, 2016; 손정훈 · 김민규, 2016; 송현 · 안관수, 2013; 양은아, 2020; 천정환, 2015) 2010년대 중반 '지대넓얕'으로 상징되는 독서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독자들의 독서 동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독서 현상은 도서 외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텍스트 분석 등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우며 사회학적인 접근법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석인, 2015), '지대넓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베스트셀러 도서가 반영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시대상과 독자들의 독서 동기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상업적인 성공을 분석하며 기존의 베스트셀러 관련 선행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통합적 접근을 취할 것이다. 텍스트에 더해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베스트셀러 지형,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독자들의 도서 리뷰를 모두 참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독서

Thumala Olave(2017)는 현재 존재하는 독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주로 리터러시와 사회 이동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독서에 대한 "사회적 실천 접근(The social practice approach)"이다.[12]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s)은 구성원 각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주관적인 규범적 판단을 통해 유지되는, 안정적이면서도 적응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일련의 행동 패턴들을 의미한다(Rouse, 2007; 조주현, 2017에서 재인용).

---

[11] '팟캐스트' '지대넓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존재한다. 청취자 카페를 통해 집단지성 발현의 양상을 탐색한 연구(김유선, 2017), 청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실천과 유희를 밝히고자 수행된 연구(원지현, 2016)가 있다.

[12] 이는 Griswold et al(2005)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독서에 대한 사회적 실천 접근은 “사람들이 문해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즉, 리터러시는 맥락 안에 위치 지어지며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이는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의 정책이나 이념에 의해 고취된다(Street, 1984).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리터러시 실천들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가 있다(Barton & Hamilton, 1998). Radway(1991)는 정신 분석적 해석을 통해 여성들이 미국에서 로맨스 소설을 읽는 행위는 전통적 결혼 관계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적인 로맨스를 다루는 도서를 읽으며 결혼 제도로부터 야기된 불만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감된 여성들이 바깥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등을 독서 행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보다 최근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Sweeney, 2010; Sweeney, 2012). 독서에 대한 사회적 실천 접근은 이처럼 ‘독서의 사용과 동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신명선, 2002:6).

두 번째는 독서 취향과 사회적 계급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독서에 대한 부르디외적 접근(The Bourdieusian approach)”이다. 부르디외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독자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상 독서 취향의 배치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Thumala Olave, 2017: 424-425). 즉, 계급과 성별 등이 어떻게 독서 취향을 구조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Kraaykamp & Dijkstra(1999)는 상위 계급의 구성원들이 보다 진지한 장르의 복잡한 도서를 선호하는 반면 하위 계급의 구성원들은 연애 소설 등을 선호하는 이유를 독자의 문화적 역량,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Atkinson(2016)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에 젠더적인 요소를 더해 독서 취향을 구조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독서 연구에 있어 이 두 관점은 각각 ‘문화 연구’와 부르디외의 작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문화 소비의 사회학’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Thumala Olave, 2020:2).

그리고 Thumala Olave(2017)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접근법에 더해 독서 연구에 대한 “문화적 독서사회학”의 관점을 제안한다. 문화적 독서사회학은 행위자로서의 독자를 연구의 가장 중심에 놓는 접근법으로서 이들의 주관적인 감상에 집중한다. 텍스트 그 자체보다는 자기 이해, 윤리적 성찰, 사회적 연대,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 독자들이 독서 행위를 통해 창조해내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성한 ‘아이콘’으로서의 도서, 책이 갖는 물질성 등을 고려해 독자들이

왜 책을 그토록 사랑하는지(the attachment to books)를 밝혀내는 데 천착한다. 즉, 문화적 독서사회학은 독서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독서가 가지는 잠재적 효용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접근법이지만 성인 독서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는 연구 주제일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상을 분석하기에는 문학 도서가 아닌 인문학 교양 서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독서 취향의 계급적 구조화를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부르디외적 접근법 또한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론적 틀로 적합하다고 하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은 국가적으로 경험한 인문학 신드롬, 집단적인 사회적 욕망과도 연관이 있다. 해당 도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이기에 특정한 독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 질문을 풀어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독자들이 왜 다른 도서가 아닌 '지대넓얕' 시리즈에 그토록 열광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에 배태된 독서의 목적과 동기의 발생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가 그토록 크게 성공했는가?" 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독자들이 사회적 목표를 상정한 채 동기를 가지고 '사회적인 실천'으로서 독서를 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동기가 독자들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를 읽도록 이끌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독서'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지대넓얕' 돌풍의 이면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상황적 형성물로서의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는 '형성물'로서 단순히 대중 독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기여를 통해 탄생한다. 톰슨(John B. Thompson) 역시 "거물급 책들(Big books)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책들은 "대화, 수다, 그 밖에 발언에 효과가 있고 의견이 다양한 정도로 신뢰 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장 내의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언어적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Thompson, 2012:195).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또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관해 언급하며 베스트셀러의 판매 부수를 통한 미디어의 '유행' 선언이 절대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Bourdieu, 1998). 임병희(2018)는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사용해 작품성보다는 작가의 유명세만을 쫓는 출판계, 비평가, 매체를 비판한 마르틴 발저의 『어느 비평가의 죽음』(마르틴 발저, 2002)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베스트셀러는 출판업이라는 장 내부의 행위자들인 저자, 출판사, 서점, 비평가, 기존 팬덤 등의 기여를 통해 탄생한다. 더 나아가서는 해당 도서가 속한 베스트셀러 목록의 존재 등을 통해 베스트셀러로 인식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승인을 받는다. 즉, "베스트셀러는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기보다는 베스트셀러로 비춰지도록 허가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Colbjornsen, 2014:1113). 그리고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인기와 사람들이 '좋은' 읽을거리라고 인식하는 기준과의 괴리가 커지는 경우에는 '나쁜' 베스트셀러가 나타날 수도 있다(Keuschnigg, 2015:31). 이와 같이 분명 베스트셀러는 다수의 취향에 맞춘 텍스트뿐 아니라 출판사 등 여타의 요소가 함께 반영된 결과물이다.

소비자의 도서 구매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선남, 2017). 제1유형인 심리적 욕구 중시형은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 제품 및 유통에 관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2유형인 매체 추천 중시형의 경우는 주변인이나 미디어의 소개, 베스트셀러 목록과 같은 추천 요인을 중시하고 도서의 제품 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중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인 콘텐츠 중시형은 도서 콘텐츠 요인을 중시하지만 서점의 도서 배치, 출판사 명성 등과 같은 도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요인은 중시하지 않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도서를 구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에 나타난 제3유형의 경우처럼 작가, 서평 등 마케팅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층은 존재했다. 브랜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타의 시장과는 달리 출판 시장에서 소비자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브랜드로서의 출판사명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책 이름과 저자명, 광고 내용이었다(박찬익, 2000:300). 따라서 구체적으로 베스트셀러에 기여하는 것은 출판사의 인지도보다 출판사가 어떻게

판매량을 늘리도록 마케팅을 펼치느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단편적 지식들을 저자의 관점에서 새로 재편집한 것에 가까우므로 텍스트의 내용 그 자체보다 구성이나,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찬익(2000)의 연구에서 한계로 언급된 부분은 수용자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이었다. 베스트셀러의 형성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의 마케팅에 더해 실제로 도서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인식에 관한 부분 역시 다룰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출판업이라는 장 외부에서 거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이다.

사회적 구성물인 베스트셀러는 거시적인 사회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표류하는 잠재적 베스트셀러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텍스트의 저술과 출판사의 마케팅, 독자들의 소비 행동은 결국 모두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항해와도 같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베스트셀러가 된 역사 소설에는 당대의 역사 인식이 투사되어 있을 수 있다(이행선 · 양아람, 2017:46).

이임자(1993)는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을 위해 개화기 이후 약 100여 년간의 시기를 근대출판여명기 (1883-1910), 계몽적 애국출판기 (1910-1945.8.15), 출판활성준비기 (1945.8.15-1961), 통제 속 출판정착기 (1962-1972), 권위주의적 출판활성기 (1973-1987)의 5가지로 구분하고 분석의 틀로서 작품적 요인, 출판기획적 요인, (시대)상황적 요인, 출판산업구조적 요인의 네 가지 요인을 설정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중 “시대상황적 요인은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났으며, 작품적 요인 역시 각 시기마다 시의적절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상”을 띠었다(이임자, 1993:302). 시대 상황적 요인은 베스트셀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안선희, 2009:12; 박치완 · 박성준, 2016).

결국 출판은 시대 상황적 요인 위에서 이루어진다. 출판이 결정되는 시점과 상황적으로 호응하는 저자의 발굴 및 원고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상황적으로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때 베스트셀러는 탄생한다. 왜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가 성공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적 사슬의 연쇄를 따라가며 분석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베스트셀러는 처해 있는 일정한 때에 맞게 상응하는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상황적 형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황적 형성물로서 베스트셀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성공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나갈 것이다.

4.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3대 서점의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오른 인문 교양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시리즈의 성공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시리즈 외에도 2010년 이후 인문학 신드롬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된 다산초당의 『인문학 습관』(윤소정, 2015), 교보문고의 『OtvN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어쩌다 어른] 제작팀, 2017), 다산초당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야마구치 슈, 2019), 위즈덤하우스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데이비드 S. 키더·노아 D. 오펜하임, 2019)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문 교양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한국 출판계에서 발생한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의 성격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도서로 국내에서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인문서가 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시리즈를 선정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한 사회적 실천으로서 독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독서는 독서를 구성하는 사회(사회 문화적 배경), 텍스트, 독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신명선, 2002; 최인자, 2008; 황윤정, 2019). 또한 상황적 형성물로서의 베스트셀러는 시대 상황적 요인을 반영해 출판업이라는 장 내부의 행위자들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다. 특히 소비자의 도서 구매 결정에 있어 마케팅 요인과 광고 내용은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남, 2017; 박찬익,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III장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텍스트의 구성 방식, 마케팅 전략,

그리고 독자들의 수용 방식 측면으로 나눠 고찰한 뒤 IV장에서 '지대넓얕' 현상을 가능하게 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것의 사회학적인 함의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접적으로 텍스트에 해당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5권[13]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저자, 편집자의 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을 살피기 위해서는 3대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의 웹 페이지를 통해 소개되는 도서별 출판사 제공 책소개, 카드뉴스(카드리뷰, 북카드), 상세 이미지, 홍보 영상, 출판사 서평(출판사 리뷰), 독자들의 추천란 등을 참고하였다. 서점별로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서 구매 화면에 제시되는 해당 자료들은 모두 대표 문구 등을 통해 출판사가 도서를 홍보하는 방식(마케팅 전략)을 살펴볼 수 있게 돕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수용자의 인식 조사를 위해서는 각 서점별 도서 리뷰들을 참고하였다. 이때 연구 자원으로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한 줄 평'에 해당하는 교보문고의 Klover 리뷰, YES24의 한줄평, 알라딘의 100자평은 연구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책을 구매해 읽어본 구매자들로 한정돼 홍보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고 짧은 감상이 아닌 보다 상세한 후기를 얻을 수 있는 '구매자 리뷰'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교보문고의 북로그 리뷰(구매자), YES24의 회원리뷰(구매 리뷰), 알라딘의 마이리뷰(구매자)의 내용을 토대로 리뷰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2022년 3월 14일까지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5권의 구매자 리뷰 총 390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 및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한 리뷰에 같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도배돼 제시되는 경우 중복되는 문장들은 제외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연구 자료가 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개략적인 정보를 [표 1]에 담았다.

[13] 본 연구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출간된 어린이를 위한 인문 교양 스토리 만화 『채사장의 지대넓얕』 1, 2, 3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도서명	출간일	출판사명	저자명	분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2014.12.24	한빛비즈	채사장	인문교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	2015.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2019.12.24	웨일북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2020.2.5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	2020.2.5			

[표 1]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전권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의 이론적 기반을 따른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언어뿐 아니라 몸짓 언어나 시각 이미지와 같은)과 사회적 실천의 다른 요소들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관한 분석”이다(Fairclough, 2003:205). Fairclough(2003)는 “사건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회 구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매개되며 구조와 사건 사이의 중간 조직체로서 사회적 실천이 기능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텍스트는 한편으로는 언어를 포함하는 사회 구조와 담론의 질서를 포함하는 사회적 실천들의 인과력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행위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은 조금 개선된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독한 수용자라면 이미 스스로 개입적 해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담론의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실재에 대한 규정력이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담론결정론(discourse

determinism)'에 빠질 위험성"도 내포한다(이기형, 2006:138-139).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어떤 사회나 상황에서,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Cook, 1992:1). 또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담론이 가지는 불투명한 측면들을 보다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altridge & Hyland, 2011:40). 따라서 본 연구는 담론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독서를 통해 탄생한 '지대넓얕 현상'을 보다 면밀히 보기 위해 담론과 수용자인 독서 행위자의 인식 모두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담론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를 밟았다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담론 분석을 실행하였다.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사례 연구(case study)에 해당한다. Yin(1984)은 사례 연구 방법을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 원천을 가지는 증거가 사용될 때 현실적 맥락 안에서 동시대의 현상을 조사하는 경험적 탐구"로 정의한다(Yin, 1984:23). 이 연구 방법은 "동시대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어떻게'와 '왜'에 초점을 맞추기에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은 항상 어느 정도 그 자체의 해체와 탐구의 조건들을 좌우"하게 된다(Yin, 1984:13). 또한 개인이나 조직, 제도뿐 아니라 사건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Yin, 2003). 사례 연구는 여러 원천을 가지는 증거로부터 이끌어낸 과거 혹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직접적인 관찰이나 체계적인 인터뷰뿐 아니라 공공 또는 사적 기록물도 포함한다(Leonard-Barton, 1990:249).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가지게 되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Stake, 1995)로서, 일반화가 아닌 현상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례가 갖는 특징과 의미에 초점을 둔다(Merriam, 1998). 단일 사례를 통한 일반화 역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 과학의 영역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얻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지식이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Flyvbjerg,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지대넓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201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자 리뷰 분석의 경우 질적 분석에 더해 양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리뷰 분석은 "기존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와 다르게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많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작성자의 무의식의 표출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여신 · 김바로, 2020:78). 구매자 리뷰들로부터 형용사를 추출할 때는 NetMiner 4를 사용하였으며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해 빈도 분석 및 연결 중심성 분석 등을 실행하였다. NetMiner는 "분석 결과를 즉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기혜선 · 정옥년, 2021:273).

II.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 변화 경향

시대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는 지난 40년간의 베스트셀러 변화는 '지대넓얕' 현상이 발생한 당대의 사회 문화적 지형을 보여줄 수 있다. Ⅱ장에서는 베스트셀러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3대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의 역대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내 출판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온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의 도서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연간 베스트셀러를 집계해 발표"해 온(김무엽, 2015:8) 교보문고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베스트셀러 30년』을 통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를 발표한 바 있다(한기호, 2011). 해당 도서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네이버캐스트-문학 광장-베스트셀러 30년 코너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다.[14] 또한 교보문고는 2004년 이후부터 공식 홈페이지의 '역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코너[15]를 통해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개 도서의 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 30년』도서 내용에 기초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도서명과 저자명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도서별 분야(장르)의 경우는 교보문고가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류하는 장르명과 『베스트셀러 30년』의 장르 구분이 상이하며 오래된 도서들은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했기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공개된 『베스트셀러 30년』 도서들의 장르 구분('이 책이 속한 분야')을 기준으로 삼고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이때 속한 장르가 표시되지 않은 오래된 자료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속한 분야를 파악하였다. 2010년 이후 베스트셀러의 경우는 '역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코너를 통해 도서명, 저자, 장르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동시에 서로 다른 여러 (세부)장르에 속하는 도서의 경우는 상위에 표시된 장르, 그도

---

[14]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8813&categoryId=58813. 2022년 4월 5일 검색.

[15] https://www.kyobobook.co.kr/event/eventViewByPid.laf?eventPid=8251 2022년 7월 15일 검색.

아니면 가장 많이 분류된 장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같은 방식으로 YES24의 경우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베스트 20위 도서' 목록[16]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YES24의 문화웹진인 채널예스의 문화 뉴스 중 YES24 소식을 통해 공개되는 베스트셀러 (트렌드) 분석 및 도서판매 동향 발표의 '종합 베스트셀러 20'[17]을 참고하였다. 다만, 2001, 2003, 2004, 2005년의 경우 YES24가 공개한 베스트셀러 도서들의 권수가 20권이 아닌 각각 18, 19, 16, 18권이었다. 이 경우 장르 비중 비교 시 특정 장르에 속한 도서의 권수에 각각 20/18, 20/19, 20/16, 20/18을 곱해 계산함으로써 20권이었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알라딘의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공개하고 있다.[18] 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함께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도록 20위까지의 도서들을 참고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들의 시기별 장르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는 Stata 17을 사용하였으며 시기별로 베스트셀러에 가장 자주 오른 도서명과 저자명을 도출할 때는 전문적인 인문학자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며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된 바 있는(Hetenyi, Lengyel & Szilasi, 2019:394-395) Voyant Tools를 통해 집계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이 공개한 역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도서들을 조사한 결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역대 베스트셀러 20위 내 가장 많이 오른 네 번째 도서 시리즈에 해당하였다. 창립 연도가 상이한 탓에 교보문고는 1981년부터, YES24와 알라딘은 1999년부터 베스트셀러를 공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조사한 모든 베스트셀러의 도서명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행할 경우 1999년 이후 도서들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16] http://www.yes24.com/eWorld/EventWorld/Event?eventno=168385. 2022년 4월 5일 검색.

[17] http://ch.yes24.com/Article/View/40454. http://ch.yes24.com/Article/View/43483. http://ch.yes24.com/Article/View/46497. 2022년 4월 5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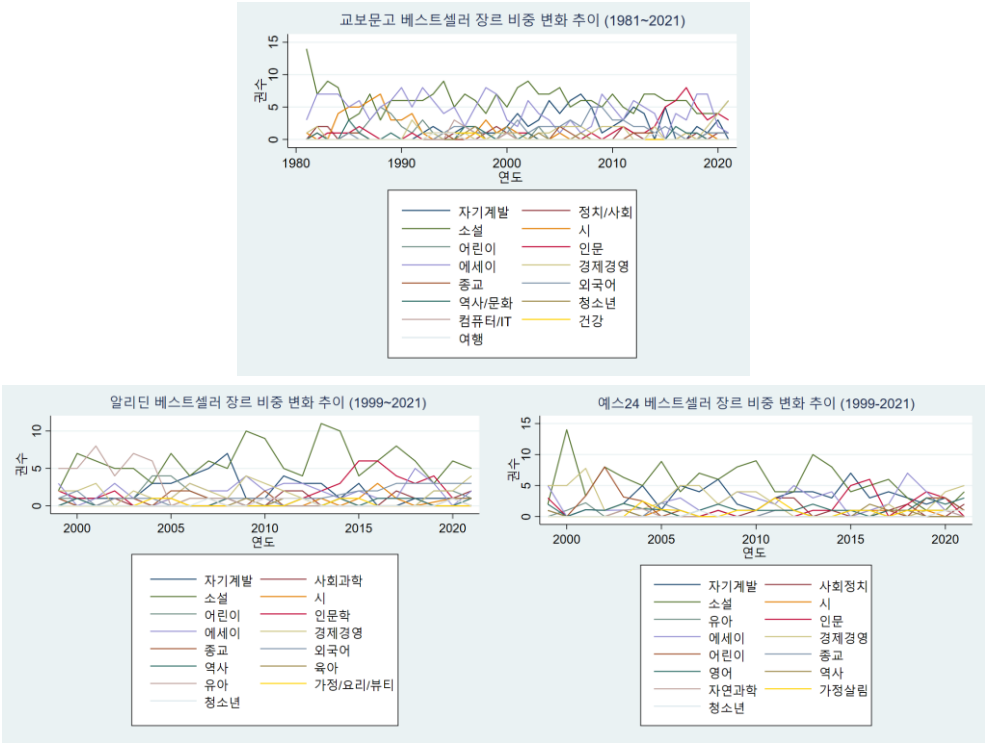
[18] https://www.aladin.co.kr/shop/common/wbest.aspx?BestType=YearlyBest&BranchType=1&CID=0&Year=2021 2022년 7월 15일 검색.

그러나 교보문고의 역대 베스트셀러 도서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동일하게 역대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서로서는 전례 없이 놀라운 기록을 세운 '지대넓얕' 시리즈는 한국에 인문학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도서인가? 그전까지의 국내 베스트셀러의 변화 양상은 어땠을까? 어떤 지점에서 '지대넓얕'이 탄생한 것인가?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 변화 경향을 직관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베스트셀러의 성격을 대변하는 장르일 것이다. 도서명이나 저자명과 같이 일관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표와 달리 장르 비중의 변화는 일관성을 담보하는 비교가 가능하다.

각 서점별 역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20개 도서들의 장르 구성 변화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아래의 [그림 1·2·3]와 같이 나타났다. 시각화는 Stata를 통해 그래프의 색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상위 15개의 장르를 대상으로 했으며, YES24, 알라딘과 달리 기본적으로 시와 에세이를 하나의 장르(시/에세이)로 구분하는 교보문고의 경우 타 서점과의 통일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 장르 구분을 참고해 시와 에세이 분야의 도서를 구분하였다.

[그림 1·2·3]를 통해서는 명확한 시대별 장르 구분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기와 상관없이 국내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항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소설과 에세이 분야를 제외할 경우 [그림 4·5·6]을 통해 보이듯 각 시대를 점유하는 베스트셀러 장르의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1 · 2 · 3]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 변화 추이

[그림 4 · 5 · 6]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 변화 추이(소설, 에세이 제외)

[그림 4]에 해당하는 교보문고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1980년대에는 시 장르의 베스트셀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린이 도서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90년대의 경우 컴퓨터/IT 도서들의 약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장르적 특징을 보이지 않다가 90년대 후반~2000년대에 진입하며 자기계발, 외국어 장르의 베스트셀러들이 부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인문학 도서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알라딘과 YES24의 1999년 이후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 변화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두 서점의 집계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기계발류의 베스트셀러들이 강세를 보이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증하던 인문학 베스트셀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장르적으로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세 시대를 구분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980년대를 시 문학의 시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를 자기계발의 시대, 2010년대~현재를 인문학의 시대로 나눠 국내 베스트셀러의 변화 경향과 '지대넓얕' 현상이 발생한 당대의 베스트셀러 지형을 살필 것이다. 이는 각각의 시기를 시 장르의 전성 시대(김경숙, 2005:206), 자기계발의 시대(장희정, 2007:1), 인문학의 열풍(손정훈 · 김민규, 2016:42) 등으로 명명했던 선행 연구들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 시 문학의 시대: 1980년대

1980년대 베스트셀러의 키워드는 '종교, 이념, 사랑, 시'로 요약될 수 있다. 교보문고 창립 30주년을 맞아 1981년 이후 지난 30년간의 베스트셀러들을 정리한 한기호 역시 1980년대를 "이념의 시대이자 불의 시대, 시의 시대이자 대하소설의 시대"라고 정의하며 각각의 해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을 붙였다(한기호, 2011:9).

"하느님을 찾는 절규가 넘치고 각종 예언서가 상종가를 친 1981년, 제5공화국 정부의 3S정책으로 황금만능주의 대중소설이 서점가를 장악한 1982년, 산업시대에 맞는 인간형으로 변할 것을 촉구하는 심리처세서가 만개한 1983년, 역사소설의 '정치성'에 흠뻑 빠지고 김지하란 횃불에 넋을 잃은 1984년, 이해인의 시와 도인의 초능력에 취해 현실의 고단함을 잊었던 1985년, 대형광고가 등장하면서 출판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86년, 개인의 결핍을 노래한 서정시와 소설, 그리고 플라토닉 사랑에 빠져든 1987년, 시의 인기가 정점에 이르고 민주화의 열기에 맞춰 다양한 출판물이 생산되기 시작한 1988년,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응하는 새로운 원칙과 기본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1989년".

1980년대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들 중 가장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는 1983년 출간돼 1989년까지 모두 5차례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진입한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였다. 그리고 이 시기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저술한 작가도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의 저자인 이해인 수녀였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외에도 이해인 수녀의 『내 혼에 불을 놓아』, 『민들레의 영토』, 『두레박』이 1980년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맹인 안요한 목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실화 소설인 『낮은 데로 임하소서』 역시 1981년과 1982년 두 차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83년에는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또한 명상가이자 인도의 철학자인 크리슈나무르티의 『삶의 진실에 대하여』, 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바바 하리 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등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 『지구 최후의 날』, 『1984』, 『제3의 물결』과 같이 현재보다는 미래를 조망했던 도서들이 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1980년대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도서들이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독자들이 구도자의 자세로 현실너머의 초월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양상을 보였다. 더 나아가서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집중한 당대 독자들의 독서 흐름을 타고 출간된 『철학에세이』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에서 출간한 『노마네반 아이들』, 『노마의 발견 1』, 알퐁스 도데의 『꼬마 철학자』, 송명호의 『생각하는 어린이들』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철학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인기를 끌었다.

『꼬마 니꼴라』와 같은 어린이 도서들이 1980년대 베스트셀러에 다수 진입했지만, 이런 흐름은 타 서점들의 집계를 참고해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2000년대 초반 이후 사라진다. 이는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19] 와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20] 가

[19]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20]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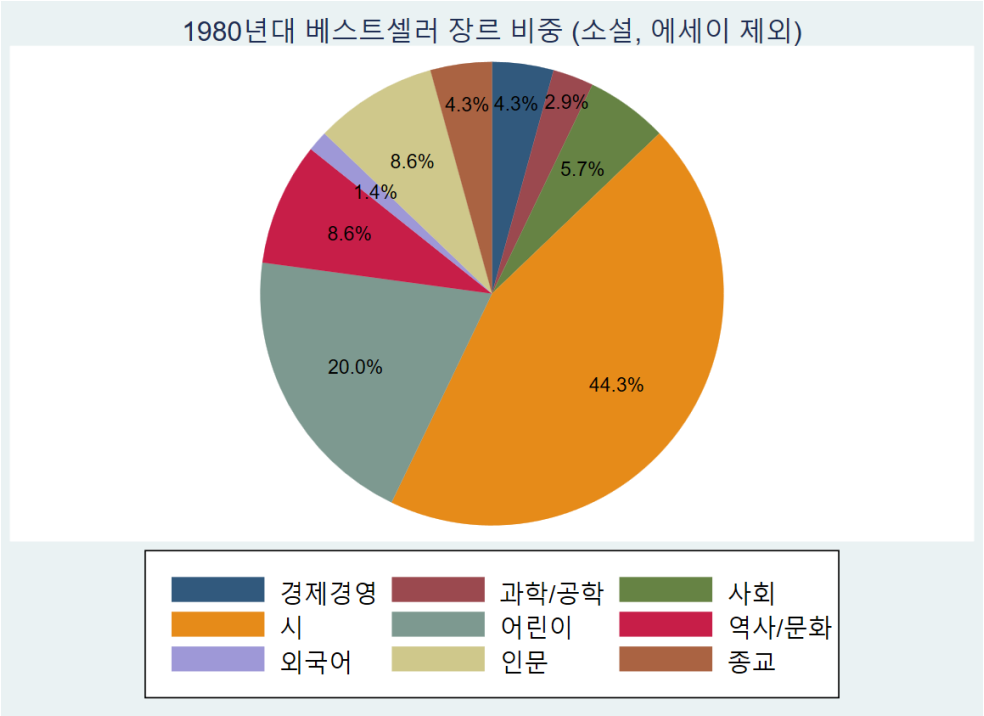
시사하듯 어린이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가 서적에서 디지털 매체로 변화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김선남, 2008).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9세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상위 10개에 독서는 없었으며, 1위는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2위는 'TV시청', 3위는 '잡담/통화/문자하기/문자보내기', 4위는 '모바일 컨텐츠, 동영상, VOD 시청', 5위는 '인터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였다. 또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독서 장애 요인으로 '스마트폰/텔레비전/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해서'(23.7%)와 '교과공부 때문'(21.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1980년대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듯 민주화 열기에 힘입은 이념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다수 진입했다. 김지하의 『황토』, 신경림 등의 『마침내 시인이여』와 같은 민중시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 외에도 김지하의 『밥』, 이태의 『남부군』과 같은 이념적 색채를 띠는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사회변혁이 일어나던 격동기의 1980년대는 독자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성에 관심을 가진 시대이기도 했다. 1982년 『이 역사의 순간들』, 1985년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 1989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구분한 세 시대 중 1980년대는 역사/문화 장르의 도서들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가장 많이 오른 시기였다.

1980~1990년대의 베스트셀러 시들을 조사한 김경숙(2005)은 1982년 출판계에는 이데올로기 도서 붐이 일어났고 문학계에서는 1980년대 초반 이데올로기 문제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1980년대 문단을 지배했던 키워드가 '문학과 사회의 상관관계'라는 거대 담론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형태만 다를 뿐 이 시기 발표된 다수의 시들은 객관적인 사회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정서 세계 중 '순전한 사랑'의 감정을 지향하고 있다며 '사랑' 담론을 이야기한다(김경숙, 2005:205-206). 실제로 1980년대에는 서정윤의 『홀로서기』가 세 차례,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이 세 차례, 김초혜의 『사랑굿』이 두 차례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오르는 등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는 '시 장르의 전성시대'였다(김경숙, 2005:206). [그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0위 내 이름을 올린 도서들 중 소설과 에세이 장르를 제외하면 시 문학은 가장 많은 44.3%를 차지한다.



[그림 7] 1980년대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시 장르를 제외하면 어린이 도서가 20%를, 역사/문화 분야의 도서와 인문 도서가 8.6%를, 사회 분야의 도서가 5.7%를 차지했다. 또한 다수가 '종교' 장르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 베스트셀러의 저자들은 종교적인 인물들이었다.

1980년대에는 당면한 현실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시대, 세상을 바라보는 도서들이 다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또한 이념적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랑 담론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은 시 문학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김성우 · 엄기호(2020:144)는 "복잡성을 인식하기 위해 반드시 긴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짧은 글도 충분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해 추상성이 매우 높은 시가 대표적"인데, 해석이 풍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80년대는 인문학적인 사유와 연관성이 큰 도서들이 베스트셀러를 석권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계발의 시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 불황과 함께 한국 사회에 경제 중심적 사고가 확산되고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은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쳐 "치밀한 시장조사와 뛰어난 편집 디자인 광고 등을 통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진다(김경숙, 2005:219-220). 1990년대의 베스트셀러는 장편소설과 시집이 두각을 나타냈던 과거의 문학류 중심에서 실용서 중심으로 변화하며, 시대상을 반영해 『컴퓨터 길라잡이』(임채성 외, 1995)와 같은 컴퓨터 관련 서적 등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등장한다(김기태, 1996:354).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해도 1990년대에는 자기계발 분야로 분류된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1992년과 1993년에는 사회적 처세에 대해 '관념적인 철학의 언어가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21]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 1』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널리 알려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1996년 노구치 유키오의 『초학습법』, 1997년 『EQ-감성지능 개발 학습법』과 같은 학습형 자기계발 베스트셀러가 등장했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어(영어) 학습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호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이 외에도 1995년 『이것이 미국영어다 1』, 1996년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1997년 『헨리홍의 영어발음구구단』, 1998년 『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시작된 IMF 시기를 거치며 고용 불안, 세계화와 함께 더욱 심화된다. IMF 이후 베스트셀러에서 시, 아동, 인문·사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넓은 의미의 자기계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제·경영서, 토익(TOEIC) 류의 외국어 학습서와 같은 실용 분야의 도서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면서 자기계발서가 종합 베스트셀러를 잠식하게 된다(안선희, 2009:46-47). 이는 압축적 근대성이 한국인들의 심성에 내재된 상황에서 IMF 경제 위기 당시 성공한 투자자 등 소수의 사례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낳은 맹목적인

[21] YES24 책소개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2876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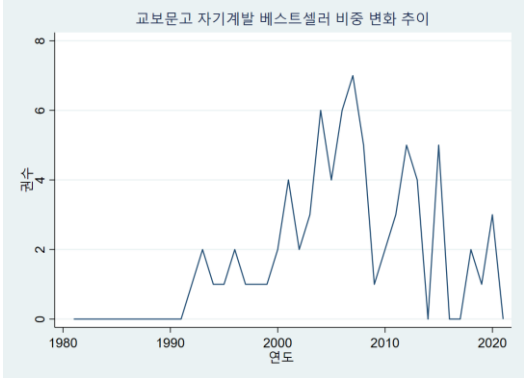
열망이 성공학 서적의 유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권오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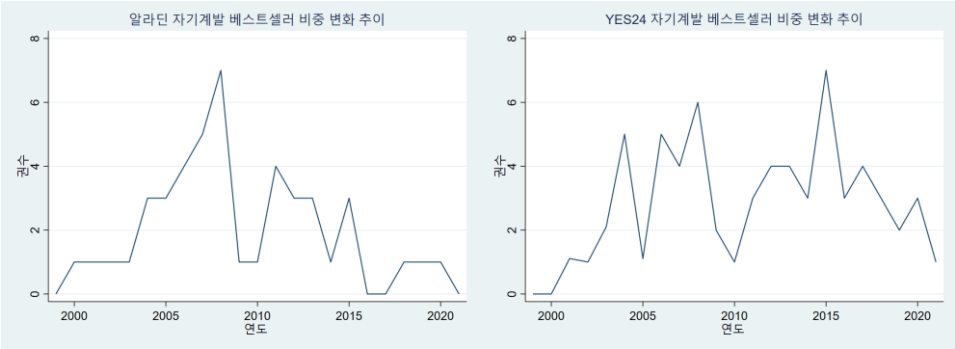
압축적 근대성이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압축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명적인 상태(Youna, 2017:33)로서 장경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압축적 근대성이 여러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위험 요인들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권오헌(2006)은 이 시기의 '성공' 담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성공담론들은 그냥 편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동조하기에는 다소 곤혹스러운 면들이 있다. 과거에도 성공을 얘기 했지만, 그때에는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의례히 수식어가 붙었다. 다시 말해 성공을 말해도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성공할 것인가가 언급되어야만 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성공담론들은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성공이다. 마치 성공의 내용과 방법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처럼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오로지 '성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유일한 측정수단은 '돈'이다."(권오헌, 2006:92)

IMF 체제는 1997년 12월 시작돼 1999년 8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 선언을 하고[22] 2001년 8월 IMF 차관을 모두 상환하면서 종료되었다. 안선희(2009)의 경우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만을 대상으로 이 시기를 분석했지만 1999년 이후 알라딘과 YES24의 자기계발 장르 비중 변화를 보아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8·9·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계발 분야에 속한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MF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22] 중앙일보. "위기 때 빛난 'DJ노믹스' 집권 1년 반 만에 "외환위기 극복" 선언". 2009년 8월 19일. 2022년 4월 11일 검색.





[그림 8 · 9 · 10] 3대 서점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비중 변화 추이

자기계발 분야 외에도 외국어(영어), 경제경영과 같은 자기계발의 성격이 강한 범자기계발 서적들이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본격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다수 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연구들 역시 이 시기 자기계발서가 부상했던 이유를 IMF 이후의 직업 안정성 약화와 경쟁의 심화 등으로 설명하며 '자기계발 담론'을 이야기한다(엄혜진, 2016; 윤지영, 2014). 또한 치열한 경쟁으로 지친 독자들을 위로하고자 자기계발의 연장선상에서 힐링을 주제로 한 도서들이 유행하는 등 '힐링 담론'이 대두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송현 · 안관수, 2013; 이범준, 2010:117; 장민우, 2013). 한준 외(2018)는 안정된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거 빈곤과 노숙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성격을 '성공생존힐링좀비' 등으로 대변되는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계발 담론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자기계발에 대한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의 연구는 실무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사회학의 기존 연구들은 문화 비평 혹은 이데올로기

비판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계발의 사회적인 함의는 긍정성, 부정성, 복합성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김건순 · 김남진 · 오세일, 2017). 가령 한국의 통치성 시각의 연구들은 자기계발의 실천을 통한 자기 관리와 통제의 방식에서 감정적 만족 등을 중시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음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서는 사회적 역할과 구분되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할 것을 조언함으로써 일상적 행위 양식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이범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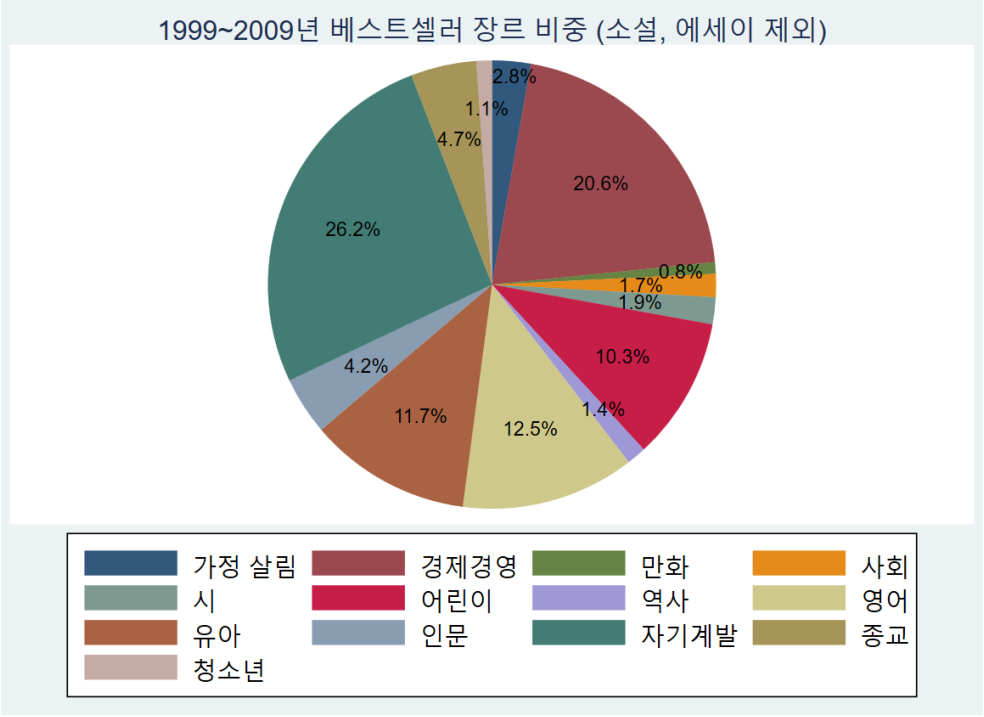
자기계발의 범위 또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어질 경우 모호해질 수 있다. 자기계발 담론 속 자기 경영의 테크닉은 거의 영성을 고무하는 수준으로까지 심화되기도 하며(김종엽, 2010:296), 자기계발 담론에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닌 도덕적이거나 영성적, 심미적인 자기계발의 논리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범준, 2010).

실제로 이 시기에는 종교적 색채를 띠는 베스트셀러 도서들마저 초점이 독자의 자기계발에 맞추어진 기복적 성향을 보인다(McGee, 2012:688). 2005년과 2006년 3대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2007년과 2008년 3대 서점 모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시크릿』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해인 수녀의 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도종환의 시를 통해 보여지는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같이 ‘순정한 사랑’의 감정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던” 1980년대 주류의 베트스셀러 도서들(김경숙, 2005:206)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붐과 함께 나타난 자기계발 담론을 간단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림 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베스트셀러의 장르 구성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다.

시각화는 1980년대의 경우와 같이 소설과 에세이 장르를 제외하였으며, 장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탓에 색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위 13개의 장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981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교보문고와 1999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알라딘, YES24의 베스트셀러들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장르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1999년을 공통된 기준으로 잡아 2009년까지 베스트셀러 상위 20개 도서들의 장르 비중을 구하였다. 이때 구분하는 도서의 장르가 서점별로 다른 경우 분야명을 일치시켰다. 인문학은 인문으로, 사회 정치와

사회과학은 사회로, 역사/문화는 역사로, 외국어는 영어로, 가정/요리/뷰티, 육아는 가정 살림으로 통일하였다.



[그림 11] 1999~2009년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그림 11]를 보면 이 시기의 베스트셀러들 중 자기계발 도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경영, 영어 분야에 속한 도서들이 그 뒤를 잇는다. 또 시, 사회, 역사, 인문 등의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층성을 가지는 자기계발을 한 가지 성격으로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자기계발서 독서를 통한 실천의 양상 역시 다양할 수 있지만 지배적인 장르의 구성을 볼 때 상대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인문학적 사유보다는 실용적인 주제를 다루는 분야로 분류되는 도서들의 베스트셀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는 '자기계발의 시대'로서(장희정, 2007), 자기계발서, 경제경영 도서, 영어 학습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실존적인 사유와 성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따라서 개인이 당면한 현실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식적 조언을 건네는 도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시기였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베스트셀러에 가장 많이 오른 도서는 해리 포터 신드롬의 주인공인 『해리 포터』 시리즈였고 저자 역시 조앤 롤링이었다. 그러나 도서명의 차순위 키워드는 각종 영어 학습서에 등장한 '해커스'였고 저자명의 경우 공지영 작가에 이어 해커스어학연구소의 David Cho가 3위에 해당하였다.

2000년대에는 '해커스 시리즈'로 대표되는 영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존 출판 시장에서의 경향이 크게 강화되는 가운데 『꿈꾸는 다락방』 등의 자기계발서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해당 도서는 예수와 부처, 유명 사상가들의 명언과 속담 등을 매일 한 편씩 읽고 행동을 변화하도록 제안하는데, 중간에 설명을 넣고 자기 암시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덧붙이는 방식 등으로 구성돼 '지대넓얕' 시리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인문학의 시대: 2010년대~현재

2010년대에 들어서면 새로워 보이는 흐름이 나타난다. 먼저 2010년 인문학 도서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3대 서점 모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2011년까지, 사회정치 분야로 분류된 YES24에서는 2012년까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내에 머물렀다. 이후에도 마이클 샌델의 도서와 함께 다른 인문 분야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인문학 현상의 시작은 주로 '힐링 담론'으로 대표되는 힐링의 측면에서 설명된다. IMF 경제 위기 후 성실성을 구성하는 물질적·심리적 조건들이 붕해됨에 따라 자포자기와 분노의 상태로 접어든 한국인들(Chang, 2019)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힐링'이었다.

자기계발의 시기를 거쳐 2010년대에 접어들면 2011년 방영을 시작한 <힐링캠프>가 표상하듯 자기계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힐링이 이미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 전면에 등장한다. 이 시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힐링 인문학'으로 묘사된다. 자기계발과 힐링은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담론이 시차를 두고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이것이 힐링 인문학을 낳았다는 것이다(송현 · 안관수, 2013).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인문학 베스트셀러들을 대표하는 키워드 역시 '힐링'이었으며 '힐링' 문화는 개인적인 삶의 위안을 얻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에는 '힐링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든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졌다(박치완 · 박성준, 2016:153).

2008년 3대 서점 모두에서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진입한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대한민국 30대를 위한 심리치유 카페』, 2012년 교보문고와 YES24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2013년 3대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된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이 대표적인 도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2015년부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시작한 『미움받을 용기』 시리즈 등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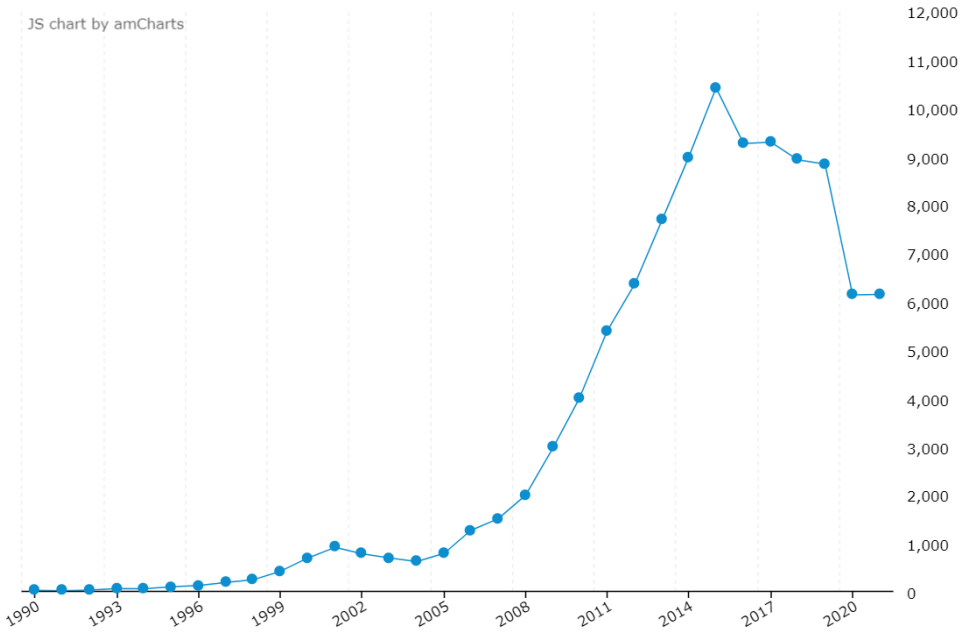
인문학 현상은 '인문학의 위기' 담론 이후 집행된 정부 정책들과도 연관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문학 신드롬은 인문학의 위기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실용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문학은 위기를 맞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된다. 1996년 인문학 교수들의 '인문학 제주선언'이 있었고 2001년 '2001 인문학 선언', 2006년에도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을 통해 인문학의 위기가 선언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인문학 위기 선언 직후 본격적으로 인문학 진흥 정책을 펼쳐 나갔다.

인문학 진흥 정책들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시대에 기반하며, 인문학과 인문정신부흥을 위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창조경제를 이뤄나가겠다'고 언급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와 함께 추진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유범상 · 이현숙, 2015). 인문학 진흥 정책은 크게 2007년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2014년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손정훈 · 김민규, 2016).[23]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미디어, 지자체, 기업 등이 반응하면서 '2010년을 전후해'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학 신드롬이 출판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일게 된다(손정훈 · 김민규, 2016; 양은아, 2020). 이처럼 인문학 담론은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 담론"으로서의

[23] 최근에도 2021년 12월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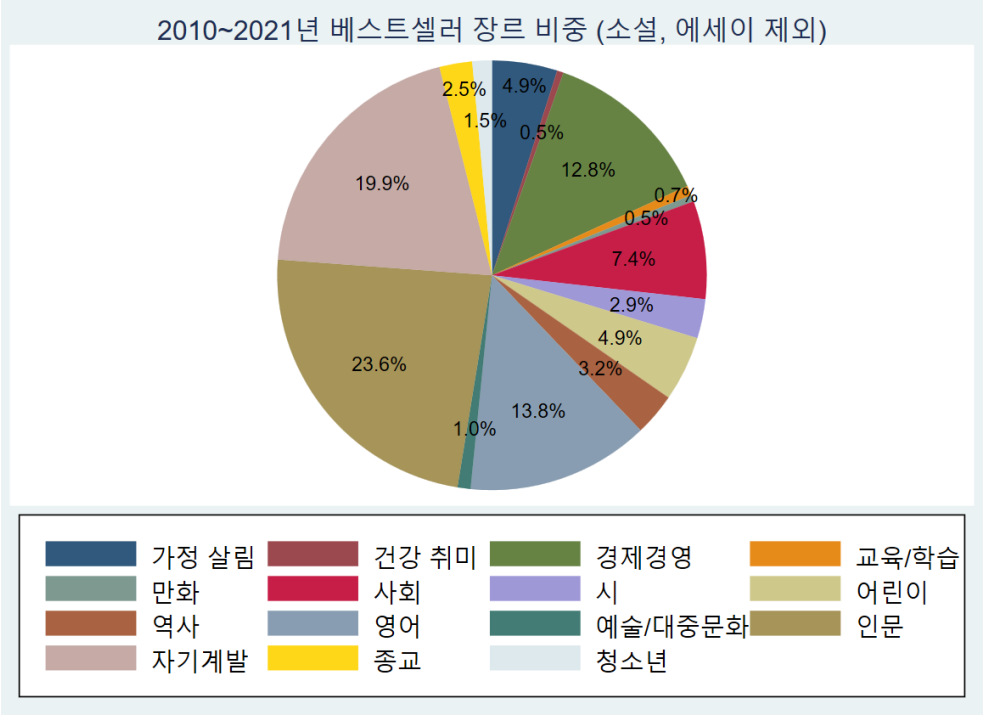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언론사에서 생산된 기사들 중 제목 및 본문에 '인문학'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기사)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그림 12]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2] '인문학' 키워드 뉴스 건수 트렌드

시각화한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인문학 기사 건수는 2010년대에 접어들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2005년 788건에서 2010년에는 407% 증가한 3994건이 되었고 그 뒤 매년 약 20%의 증가율을 보이다 2015년 최초로 10,000건이 넘는 10,404건이 생산돼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 그리고 이처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도달한 시점인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이 각각 출간되었던 것이다.

시대 상황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출판계에서도 [그림 4 · 5 · 6]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2010년대 중반 이후 인문학 도서가 전성기를 맞게 된다. '지대넓얕' 시리즈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인문학 신드롬을 견인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대 서점의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은 [그림 13]와 같았다.



[그림 13] 2010~2021년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소설과 에세이는 제외하였으며 구분하는 도서의 장르가 서점별로 다른 경우 분야명을 일치시켰다. 명확한 색 구분이 가능한 상위 15개 장르 내에 새로 진입한 수험서자격증 분야는 교육/학습 분야로 통일하였다.

2010년~2021년까지 3대 서점의 베스트셀러 상위 20개 도서들의 장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문'이었다. 소설과 에세이를 제외하고 1980년대 8.6%를 차지했던 인문 분야 도서의 비중은 1999~2009년 4.2%로 감소한 후 2010~2021년 23.6%로 크게 증가했다. 순위로 살펴볼 경우 소설과 에세이를 제외하고 인문 분야의 도서가 3대 서점의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 3위, 1999년~2009년에 7위, 2010년~2021년 1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2010년~2021년까지의 시기는 1980년대보다도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에 관심이 더 많았던 시대였다고 단순히 결론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문학 소비의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별 베스트셀러 장르의 종합적인 지형을 보면 그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소설과 에세이를 제외한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의 순위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경우 시, 어린이, 인문(역사/문화), 사회 순이었고 1999년~2009년의 순위는 자기계발, 경제경영, 영어, 유아 순이었다. 그리고 2010~2021년의 순위는 인문, 자기계발, 영어, 경제경영 순이었다. 상황적 맥락을 살펴보면 2010년~2021년의 장르 구성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의 비중이 높았던 1980년대보다는 오히려 실용서 위주였던 1999년~2009년의 구성과 더 유사해 보인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3대 서점의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도서 3위에 해당하였다. 그 뒤를 『정글만리』 등이 따랐다. 또한 '지대넓얕' 시리즈의 저자인 채사장은 이 시기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내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이는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마이클 샌델이나 열 번째였던 유발 하라리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2010년대 중반 등장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위와 같은 국내의 베스트셀러 지형 위에서 어떻게 그토록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가?

III. 베스트셀러 형성 과정의 3차원적 분석

무명 작가였던 채사장의 '지대넓얕' 시리즈는 2010년대의 인문학 신드롬에 힘입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어떤 특징적인 요인들에 힘입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는가?

III장에서는 역대 베스트셀러 20위 내 가장 많이 오른 네 번째 도서 시리즈가 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성공 요인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먼저 '지대넓얕' 시리즈의 텍스트 구성 방식과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본 뒤 실제로 도서를 구매한 독자들의 리뷰 분석을 통해 독서의 목표와 동기를 포함하는 독자의 수용 방식을 확인할 것이다.

1.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

1) 학습서 형식의 구성

출판사 한빛비즈는 '지대넓얕' 시리즈를 '인문형 자기계발서'로 정의했다.[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여러 면에서 자기계발서를 넘어 '학습참고서'를 연상시킨다. 학습서는 오래전부터 서문, 도입, 단원, 부록(연습)과 같은 구성을 가지며 단원의 각 파트는 '학습 단원'과 '복습 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김가연 · 김효은, 2015:578; 김정숙, 2012). 또 오늘날 학습서는 '준비 학습'→'기본 학습'→'응용 학습'→'단원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는 흐름을 갖는다(유재성, 2015).

'지대넓얕' 시리즈에 해당하는 모든 도서들에는 프롤로그와 목차 사이에 "이 책을 읽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코너는 '읽는 순서'와 '책의 난이도'로 구성된다. '읽는 순서'에는 해당 도서를 저자가 제시하는 순서에 맞게 읽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부터는

[24]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5일 검색.

‘지대넓얕’ 시리즈 3권을 관통하는 구조와 관점(틀)을 설명하는 “지대넓얕 시리즈” 부분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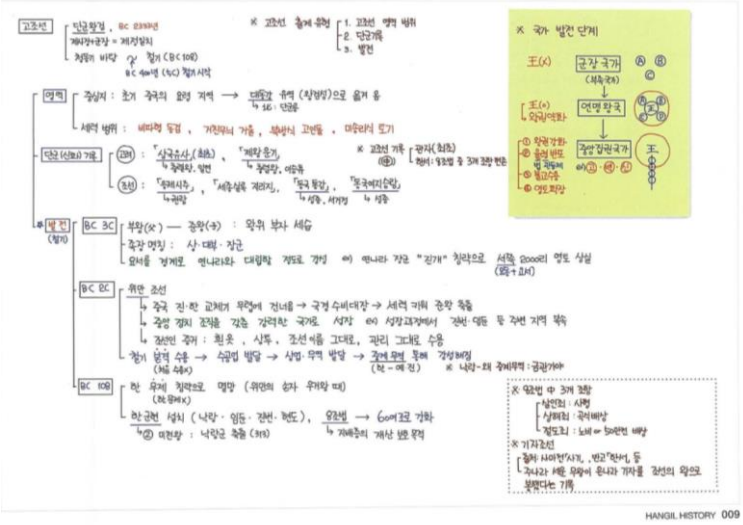
이는 2010년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나 2021년 출간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다른 인문 도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대넓얕’의 독특한 특징이지만 학습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가령 『해커스 토익 Reading 리딩』(David Cho, 2008)의 경우 앞부분에 “책의 특징”, “책의 구성” 코너가 있고, 『EBS 수능특강 과학영역 지구과학 2』(한국교육방송공사, 2015)의 경우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이 있으며 『2016 위포트 한 권으로 끝내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최신기출유형분석 + 실전모의고사』(황현빈, 2016)의 경우에도 “학습가이드” 코너가 존재한다. 이는 학습서의 ‘준비 학습’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대넓얕’ 시리즈는 장별로 ‘중간 정리’와 ‘최종 정리’를 두고 있으며 본문에는 한 장에 한 개꼴로 필기 형식의 도식과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실은 아래의 [그림 14 · 15]과 같이 출판사의 홍보 자료[2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 15] ‘지대넓얕’ 시리즈의 본문 구성 이미지

[25] 그림 14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그림 15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에 해당한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0313186&orderClick=LEa&Kc=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90313193&orderClick=JGJ

이 역시 다른 인문 도서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기계발류의 도서와 학습서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예컨대 『부의 추월차선 (10주년 스페셜 에디션)』(엠제이 드마코, 2022)의 경우 매 장의 뒤에 기억하기 쉽도록 핵심 사항만을 요약 정리한 'SUMMARY'를 제공하고 있다. '지대넓얕' 도서들에 실린 도식과 그림은 [그림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전한길, 2014)와 같은 수험서[26]를 연상시킨다.



[그림 16] 2015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본문 미리보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중간 정리와 최종 정리는 기본 학습 후 자신이 이해한 것과 정답을 비교해 보는 '단원 평가', 또는 학습 단원 이후의 '복습 단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지대넓얕' 시리즈는 특정 시험에 대비하는 연습 문제만 없을 뿐 학습서와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합의된 인문학의 '교과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대넓얕' 시리즈는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학습 참고서는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아닌 암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전 민음사 대표)와 이홍 출판기획자는 한

[26] YES24의 온라인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13684423

인터뷰[27]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처럼 저자가 주관을 갖고 이야기를 쭉 이끌다보니 대화가 아니라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요. **강의식 책의 전형적인 단점인 대화를 촉발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이 책에서도 드러납니다.**" (프레시안, 2015/7/24. 강조는 필자)

"**교과서 해설**을 읽는 느낌이죠. (중략) <지대넓얕>은 **선생님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마!' 하고 가르치는 전형적인 참고서형 서술 방식을 취합니다.** 학원이 예상 문제집 만들 때 쓰는 방식이죠." (프레시안, 2015/7/24. 강조는 필자)

2) 단순하게 구조화

상기한 내용처럼 학습서 형태로 구성된 '지대넓얕' 시리즈는 타 인문 도서들과는 차별화되는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권미경 편집자(웨일북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작 '지대넓얕'은 방대한 지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 **효율적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단순화**되기도 하는데, 그로부터 생기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을 이어서 기획하게 됐다" [28] (이투데이, 2016/8/12. 강조는 필자)

그러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지식을 단순히 열거해 놓은 사전류의 책이 아니다. 채사장은 '지대넓얕' 시리즈의 "이 책을 읽는 방법"의 '책의 난이도' 부분에서 해당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책의 목표가 넓고 얕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만, 그렇다고 개별 분야의 피상적인 내용만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선별해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채사장, 2014. 강조는 필자)

이와 같은 선별 및 단순화를 통한 '압축화'의 작업을 통해

---

[27]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5일 검색.
[28] 이투데이. "[출판사 첫 베스트셀러] 웨일북, 채사장의 '시민의 교양'". 2016년 8월 12일. 2022년 5월 6일 검색.

‘지대넓얕’의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지대넓얕’ 시리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닌 채사장의 관점에서 단순하고 쉽게 선별된 지식이다.

“책 내용이 너무 얕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쉬운 서술로 어떤 현상 뒤의 구조와 본질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29] (시애틀N, 2015/2/28. 강조는 필자)

“이런 큰 틀을 읽는다면 충분해요. **너무 세밀하게 보시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 있어요.**” [30] (채널예스, 2015/3/31. 강조는 필자)

“**겁도 없이 폭력적으로 세상을 단순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디테일에 집중하지 말고 각각의 챕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기만 하면 구조가 보일 거다. 소설책 읽듯이.** (중략) 2011년 이후에 책을 거의 안 읽었다. 베스트셀러는 더더욱. 책을 쓸 때 참고 서적 없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을 떠올리며 썼다.” [31] (매일경제, 2015/5/6. 강조는 필자)

채사장은 먼저 세계를 1권에 해당하는 ‘현실 세계’와 2권에 해당하는 ‘현실너머’로 구분해 정리한다.[32] 그리고 역사·경제·정치·사회·윤리를 다루는 1권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 철학·과학·예술·종교·신비를 다루는 2권을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삼분법으로 설명한다. 특히 알파벳을 사용해 구분을 더욱 단순화하는데 지배자는 A, 피지배자는 B에 해당하며, 절대주의는 A, 상대주의는 B, 회의주의는 C로 표현된다. 이에 해당하는 책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와 B가 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다. A가 말을 들어 B의 진영에 내려놓으며 말한다.
“장이야.”
B가 당황한다. A가 점잖게 말을 잇는다.

---

[29] 시애틀N. “팟캐스트 '팬심'이 베스트셀러 동력?”. 2015년 2월 28일. 2022년 5월 6일 검색.
[30] 채널예스. “채사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2015년 3월 31일. 2022년 5월 6일 검색.
[31] 매일경제. “‘지대넓얕’ ‘피키캐스트’ 인기…얕지 않은 ‘얕음’ 지닌 대중문화가 볍고 빠른 꿀팁에 매혹되다”. 2015년 5월 6일. 2022년 5월 6일 검색.
[32] 2019년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은 이원론을 다루는 ‘지대넓얕’ 1, 2와 달리 일원론의 시대를 다룬다는 사실로 구분된다.

"장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한다네. 눈을 감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말들의 다음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하지. 자네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문제네."

장기판을 뚫어져라 주시하던 B가 말을 하나 움직이며 말한다.

"멍이야"

A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장기판을 주목한다.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 B가 말한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네. 삶의 경험은 생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지. 진짜로 장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네. 수많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장기판을 장악하는 법을 알게 되지."

B의 말이 다 끝날 때쯤, A와 B 근처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던 C가 벌떡 일어났다. A와 B는 깜짝 놀랐다. C가 얼굴을 돌렸다. 화가 나 있었다. A와 B는 더 놀랐다. 그 상태로 C는 둘에게 걸어와 소리쳤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너희 장기를 말로 하냐? 그냥 하지 마!"

그리고는 장기판을 뒤엎어버렸다."(채사장, 2015:57-58)

위의 관점에서 고대~현대 철학은 A에 해당하는 플라톤, 교부철학, 스콜라 철학(실재론), 합리론(칸트), 하이데거, B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유명론), 경험론(칸트), 비트겐슈타인, C에 해당하는 소피스트, 니체·실존주의·포스트모던으로 간단히 정리된다. 이처럼 '지대넓얕'은 풍부한 예화와 단순한 구조화로 독자들이 '쉽게' 또는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지대넓얕' 시리즈는 "지식이 단순하게 구조화되는 카타르시스" 등의 문구와 함께 홍보되었다.[33]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대넓얕' 시리즈는 철저히 채사장의 관점에 따라 선별된 지식 및 이론들이 서술된 것이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전 민음사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도 인문학 책을 계속 만들어 온 편집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해드리죠. <지대넓얕>이 저자가 비전문가로서 공부해서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요약 노트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나 자의적 해석이 강해요. 범주의 오류(다른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같은 범주에 뒤버리면서 발생하는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씩 눈에 띕니다. 2권은 '현실 너머'를 정리해

[33]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 책소개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867542

주는데, (2권에 들어간) '예술' '철학' '과학' 같은 게 정말 현실 너머에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34] (프레시안, 2015/7/24)

가령 채사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과 개정판에 해당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을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인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으로 구분하며 시작한다. 그러나 채사장은 오래전부터 철학계에서 실제로 'A 이론'과 'B 이론'으로 일컬어지는(McTaggart, 1927) 시제적 시간 이론과 무시제적 시간 이론으로 시간관을 구분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생산된 지식 중 어떤 품목을 어떤 동선에 위치한 매대에 놓을지는 '지식 가게의 사장'인 채사장이 정하는 것이다.

"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 독자가 남긴 리뷰를 인용하고 싶어요. '이 책은 인문학 서적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이 담긴 것이다' 라는 리뷰였는데요. **이 독자 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책의 목차를 보면 지식에 대해 잘 정리한 책 같지만 실은 철저히 저자인 제 관점으로 쓰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 (북DB, 2015/4/29. 강조는 필자)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가는 시대다.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정도다. 그래서 가게를 열었다. **널려 있는 정보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지식만을 선별해서 쉽고 단순하게 손질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진열했다. 저자 채사장은 새롭게 오픈한 지식 가게의 사장이다.**" [36]

저자의 관점에 따라 선별돼 단순화된 상태로 제시되는 '지대넓얕'의 지식들은 독자들의 고민을 줄여주고 '읽는 순서'와 같은 방향이 제시됨으로써 쉽게 읽힌다. 목차와 달리 '지대넓얕' 시리즈는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참고서의 경우처럼 합의된 사전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책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지대넓얕' 시리즈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34]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6일 검색.
[35] 북DB. "채사장 "우리 최소한 알아듣기는 합시다"". 2015년 4월 29일. 2022년 5월 6일 검색.
[36] 출판사 한빛비즈의 홈페이지 저자소개 참고. 강조는 필자. https://www.hanbit.co.kr/biz/books/book_view.html?p_code=B2891459448

제로 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400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분량 안에 다루며 주제별 지식들을 보다 작게 쪼개진 형태로 제시해 소화를 돕는다. 5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가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에서조차 이론들은 선별화의 과정에서 생략된 형태로 소개된다. 예컨대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의 경우 먼저 코펜하겐 해석만 제시된 뒤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언급되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휴 에버렛 3세의 다세계 해석만이 제시된다(채사장, 2019).

'지대넓얕' 시리즈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해 높은 추상성을 가지는 시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지식을 기술하기에 하나의 내용을 10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얕게' 다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 독자들이 '지대넓얕' 시리즈를 입문서가 아닌 학습서로 인식할 경우 저자의 관점에 따라 선별된 이론들만 기억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37] 넓은 지식의 선별화 및 단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관점들이 생략되고 채사장의 입장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채사장의 말처럼 이를 인문학의 정석이나 백과사전과 같이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책을 완독 후에 실생활에서 좀 더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필했습니다. **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을 정석처럼 쓰게 된 것입니다.**"[38]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4/29. 강조는 필자)

---

[37] 가령 채사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채사장, 2019)을 시작하며 '허수 시간'을 도입해 가정한 하틀-호킹의 '무경계 모형'을 통해 빅뱅 이전을 말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호킹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덕분에 안도했다는 일화를 전한다. 그러나 이미 케임브리지대의 Barrow(1991:67-68)가 지적했듯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양자 이론을 더한 '시작점' 없는 우주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팽창' 우주는 '유한한' 과거를 갖기에 빅뱅 이전의 문제에 관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과, 참고 문헌에 제시된 『시간의 역사』(스티븐 호킹 저/김동광 역, 1998) 이후 호킹조차 '시간의 역할을 하는 위도 개념'을 사용해 남극을 언급하며 이를 시사했다는 사실(Hawking, 2010:134-135) 등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도리어 채사장은 이를 '단순 구체'에 해당하는 지구에 비유하며 전혀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38]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채사장' 인터뷰".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년 4월 29일. 2022년 5월 6일 검색. https://moonpage.tistory.com/4

“가까운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다. 친구들과 모이면 정치, 경제, 철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된 개념이 없는 게 아쉬웠다.** 매번 개념의 의미만 조율하다가 대화가 끝났기 때문이다. **여러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책이 있다면 친구들과 같이 보고 그 너머의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바람에서 책을 썼다.**” [39] (단대신문, 2017/5/16. 강조는 필자)

‘단순하게 구조화’한 ‘지대넓얕’이 인문학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는 채사장의 바람과는 달리 독자들이 비판적 인식 없이 단순하게 구조화된 내용을 반복 학습 및 암기하는 데 그친다면 그의 표현대로 ‘세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토론으론 설득이 안 되는데(웃음), 사실 팟캐스트 ‘지대넓얕’ [40]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했던 거 같은데, 세뇌를 하면 돼요. 설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이 아니라 세뇌거든요. 어떻게 세뇌하면 되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독실이가 많은 분들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1] (딴지일보, 2017/3/28)

2. 직관적이고 솔직한 마케팅

출판사는 ‘지대넓얕’ 시리즈를 ‘인문형 자기계발서’로 포지셔닝하며 제목이 함의하듯 솔직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인정과 효율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이는 그간 삶의 의미, 정의 등과 같은 철학적 가치를 내세워 왔던 기존의 인문서들과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채사장이 밝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도서명의 앞부분은 목표, 뒷부분은 수단에 해당한다.[4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

[39] 단대신문. “채사장 : 넓고 얕은 지식을 파는 지식가게의 사장”. 2017년 5월 16일. 2022년 5월 6일 검색.

[40] 후술하겠지만 채사장은 도서의 출간 전 기독교 신앙과 과학에 독실한 ‘이독실’, 동양 철학과 명상학을 공부한 ‘김도인’, 순수 학문에 관심이 많은 ‘깡선생’과 함께 동명의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41] 딴지일보. “[이너뷰]지대넓얕 채사장과 삼라만상 인터뷰”. 2017년 3월 28일. 2022년 5월 6일 검색.

[42] 한빛비즈. “한 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지식 여행서 - ‘지대넓얕’”. 2014년 12월 29일. 2022년 4월 30일 검색.

얕은 지식』 시리즈는 "지식 수준이 들통 날까 봐 대화 자리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서평을 달고[43] 표지에 적힌 "한 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지식 여행서" (또는 "한 권으로 현실 세계(현실 너머)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라는 부제와 함께 홍보되었다.

"어떤 문제든 대화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쉬운 인문학 입문서"라는 출판사의 리뷰[44]는 '지대넓얕' 시리즈의 '투 트랙 마케팅 전략'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 후술하겠지만 '지대넓얕' 시리즈의 마케팅은 모두 자격으로서의 인문학적 교양을 갖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가장 쉽게 제공하는 수단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제안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도서명에서 직관적으로 제시되는 목표 및 수단과도 완벽히 부합하는 것이다.

1) 지식수준이 들통날까 봐 두려운 당신에게

'지대넓얕'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출간된 두 책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45]에서 출판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적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권한다. "지적 대화에서 늘 리액션만 해 온 당신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대넓얕>이 도와줄게요!" '지대넓얕'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대화에서 리액션만 하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 위해서'인 것이다.

지적 대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속을 앓는' 일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46]에는 "잘 몰라서 속앓았던 상식 용어, 기초 이론, 지식 흐름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그리고 아래에는 일부 독자들의 리뷰를 인용한 다음과

---

[43] 매일경제. "'지대넓얕' '피키캐스트' 인기…얕지 않은 '얕음' 지닌 대중문화가 볍고 빠른 꿀팁에 매혹되다". 2015년 5월 6일. 2022년 5월 6일 검색.
[44]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출판사 리뷰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58
[45] 알라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출판사 제공 책소개 참고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9481412
[46] 알라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 2권 출판사 제공 책소개 참고. 강조는 필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28727924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28728501

같은 후기들이 제시된다.

“ ‘보통의’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 당장 써먹을 만한 정보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교양 링거나 다름없다. 그간 수많은 교양서들을 영양제로 챙겨먹었으나 효과를 도통 모르겠다거나 **지금 당장 인문학 결핍을** 해소해야겠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복잡하기만 할 것 같은 주제들을 단순하게 이해시켜주는 저자의 통찰력이 대단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세상을 모르고 사는 나 같은 속 빈 교양인**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

이들은 왜 ‘속 빈 교양인’이 된 것일까? ‘인문학 결핍’은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생긴 것인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판사가 홍보에 사용한 독자 후기들과 문구를 참고하면 지적 대화는 ‘경쟁 상황’과도 같이 묘사된다.

“잘못 주워들은 지식을 뜻도 모른 채 남발하는 친구. **무시당하지 말라고** 선물해줬어요!” [47]

“이 책을 읽고 나니 지적인 대화에서 전혀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만약 내가 이 책을 조금 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거미줄처럼 얽힌 **지적인 대화 속에 먹잇감이 될 일은 없었을 거다**.” [48]

“기초 상식에 목말라 있던 보통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토론하게 하고** 뉴스를 주체적으로 보게 하고 선거에서 주관을 갖게 한 책” [49]

출판사는 개정판을 출간하기 전 기존 도서의 “책소개”와 “출판사 리뷰”에 직장인의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지식수준이 들통 날까 봐 대화

---

[47] YES24의『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카드뉴스로 보는 책”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48]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 출판사 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867542

[49] YES24의『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책소개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58

자리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해 놓았다.

"오늘도 당신은 **수시로** 사람들과 만난다. 담배 한 대를 피우는 **막간의 시간**이든, 점심을 먹는 조금 긴 시간이든, **상사와 외근**을 나가야 하는 긴 차 안이든, **대화는 필요하다**. 어떤 대화로 연명해왔는가? 쉽게는 어제 뭐 봤니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는 연예인 이야기를 거쳐 상사 뒷담화로 이어지는 대화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가 누구든 그 관계조차 시시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다 가끔 색다른 상대에 의해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요하는 대화가 시작되면 금방 들통 나는 지식의 한계에 부끄러움마저 느낄 것이다.**" [50]

이는 타겟 독자층을 고려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 소외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예기치 못하게 '수시로', '막간의 시간'에 시작되는 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넓고 얕은 지식'이 된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로는 대화에 등장하는 지식이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야기된다. 채사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의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대화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세계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도 없이 재미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그렇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채사장, 2014. 강조는 필자).

홍보 동영상에서도 '지대넓얕'은 "아주 기본적인 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으로 설명되었고[51], "타인과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 지식"[52], "교양인으로서 꼭

---

[50]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출판사 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51]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관련 동영상' 부분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52]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책소개 참고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지식”[53] 등으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대넓얕’은 “힘 있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필수 기초 교양”으로서 “책을 덮는 순간, 현실너머의 진리에 대해 당당한 지적 목소리를 내는 진짜 지식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메시지[54] 로도 홍보된다. ‘인문학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유인이 내포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미 2014년 ‘지대넓얕’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의 홍보는 “책을 덮는 순간, 독자는 이 시대의 힘 있는 지식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55]

“매일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얕은 지식조차 없음을 절감하고 대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진짜 지식인이 되는 법**”

“지금 이 세계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지식인은, 가짜다. **현실에서 필요한 지적 대화에서 비껴난 채로 산다면 개인의 삶은 결코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넓고 얕은 지식,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진짜 지식인이다. 현실에 대해 당당한 지적 목소리를 내는 **진짜 지식인만이 경쟁력을 얻고 힘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예시처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의 홍보 자료에서도 사회적 인정 수단으로서의 인문학적 지식이 언급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사는 데 필수적이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외려 넓고 얕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세계에 발 딛고 있는 ‘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 ‘나’에 대한 이해는 한층

---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58

[53]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 출판사 리뷰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84

[54] 교보문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 책소개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94120997

[55]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출판사 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더 깊게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해 먼저 '세계'부터 찬찬히 여행해보자." [56]

'지대넓얕' 시리즈의 홍보는 '인문학적 지식의 획득을 통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일관된 독서 동기 및 목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매한 철학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으며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관적인 언어로 독자들의 솔직한 니즈(또는 욕망)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는 '지대넓얕' 시리즈의 특징적인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한 권으로 편안하게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지대넓얕'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의 부제는 "한 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지식 여행서"였으며,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의 부제는 "한 권으로 현실 세계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한 권으로 현실 너머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였다. 개정판의 띠지에는 각각 "더 친절하게 다듬었다! 우리가 사랑한 인문 교양서", "더 쉽고 재미있어졌다! 인문학 판도를 바꾼 교양서"라는 문구가 따랐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의 경우 부제는 "지혜를 찾아 138억 년을 달리는 시간 여행서"로 띠지에는 "제로 편: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완성"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즉, '지대넓얕' 시리즈의 도서들은 아래에 제시되는 홍보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공통적으로 "한 권으로 편안하게 지식을 통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식이 단순하게 구조화되는 카타르시스! **머리 아팠던** 철학도, **어렵기만 했던** 과학도, 난해했던 예술도, 이해할 수 없었던 종교와 신비의 영역도 **쉽고 편안하게** 이해된다!" [57]

---

[56] 교보문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 책소개(북소믈리에 한마디!)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94120997

[57]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작가 특유의 유머와 필력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고 지루한 것을 재밌게 정리하는 기술**은 여전하다." [58]

"그렇게 독자는 '모든 지식의 시작'부터 다루는 이 책을 통과하며 **비로소 '모든 지식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 [59]

"**어렵고 딱딱하던 인문학 분야** 판도를 뒤바꾼 책. (중략) 직장인들이 독서 모임을 갖게 하는 등 세대 불문 남녀노소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였다고 평가받는 책.**" [60]

상식적이지만 동일 면수를 가정할 때 '지대넓얕' 1, 2가 다루는 10개 주제에 해당하는 도서 10권을 읽거나 2권씩 총 20권을 읽는 것보다 압축된 2권을 읽는 것이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에 쉽고 효율적이다. 동일한 면수를 가정할 때 한 주제만 전문적으로 좁게 다룰 경우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여러 측면을 중층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깊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술한 것처럼 직장 상사 등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위해 얕은 인문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범위를 다루는 인문학적 지식을 가능한 한 쉽게(효율적이게) 선별해 주는 것이 된다. 출판사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마케팅을 펼쳤다. 잠재 독자들이 공감하는 선별화의 필요성과 '지대넓얕'에 대한 권면은 함께 이루어진다.

"과학, 역사,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철학, 종교…. "도대체 이 심오한 주제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거야?**" [61]

종교, 신비 편)』 출판사 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867542

[58]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책소개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84659792

[59] 교보문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출판사 서평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0313131&orderClick=LEa&Kc=

[60]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책소개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58

[61] 알라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출판사 제공 카드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9841523

“경쾌한 문장으로 **넓은 지식을 빠르게 훑는** 지대넓얕 특유의 재미는 이번 편에서도 이어진다.” [62]

“이제까지 **방대한 지식을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은 없었다.” [63]

“책을 읽는 순간, 독자는 그토록 **방대했던 지식의 분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쉽게** 이어지는 것을 체감하며 지적 쾌락에 몸을 떨 것이다.” [64]

"교양의 뼈대를 세우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략) **이 책은 어렵고 방대해서, 눈앞의 현실이 시급해서, 때로는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교양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이 빠르고 쉽게 교양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65]

이와 같이 선별화된 지식인 ‘지대넓얕’ 시리즈는 국내의 출판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도서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서’와 같은 방식으로 홍보되었다. 먼저 제시되는 “이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의 범위”[66]는 [그림 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습 범위’를 연상시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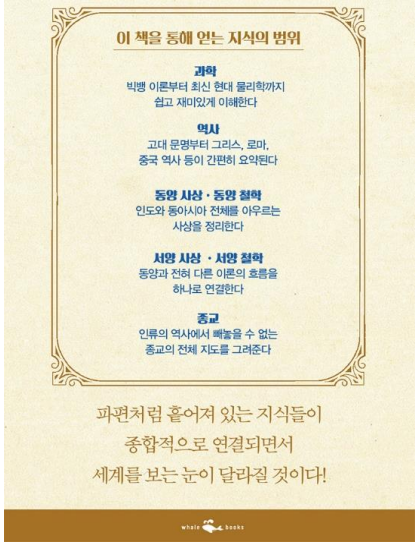
[62] 알라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편집장의 선택 참고. 강조는 필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9841523

[63] YES24의『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관련 동영상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64] YES24의『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출판사 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65] 알라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편집장의 선택 참고. 강조는 필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9481412

[66] 알라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출판사 제공 책소개 참고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9841523



[그림 17] ‘지대넓얕’ 제로 편 “이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의 범위”

‘단원 목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홍보물에 등장한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다섯 주제는 현실을 구성하는 힘이다. 저자는 **각각의 주제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설명한다.” [67]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는 각각 “복잡했던 지식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한 권으로 풀어낸 가장 핵심적인 인류사”[68], “단편적 지식이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한 권으로 거머쥐는 드넓은 지식의 역사”[69]라는 문구로 홍보되었다.

‘단편적 지식’을 재구조화했음을 밝히며 “한 권으로 풀어낸 가장 핵심적인 인류사”를 이야기하는 ‘지대넓얕’ 시리즈의 홍보 문구는 수험서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요약’을 떠오르게 한다. 가령 ‘수험서 자격증’으로 분류되는 도서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수험서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의 책소개에는 “방대한 양의 한국사

[67] 알라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편집장의 선택 참고. 강조는 필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9481412
[68]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상세 이미지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58
[69]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 상세 이미지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84

내용을 핵심만 압축한 교재로, 한국사의 흐름과 핵심을 모두 잡아준다"는 문구가 등장한다.[70] 마케팅에 사용된 독자 리뷰 형식의 홍보 자료 역시 학습참고서의 리뷰를 연상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인 교습 받는 기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더라면!"[71]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마치 족집게 인문학 선생님이** 독자들에게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에 대한 흐름과 **중요 핵심 포인트를 명쾌하게 집어주듯이** 효과적인 구성을 사용하여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72]

"**전교 1등의 비밀 노트를 훔쳐보는 기분이다!** 채사장은 진정 정리의 달인이다.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의 구슬들을 한 번에 엮게 만드는 시원한 힘이 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면 꽤 유용한 서브노트가 되어줄 것이다."[73]

지대넓얕은 가장 쉬운 인문학 '입문서'[74],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선(先)지식'을 표방하는 동시에 "지식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며, 모든 지식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 주는"[75], "한 권으로 통달하는" 책으로도 홍보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의 부제는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완성'이었으며, "어려운 것을 풀어 쉽게, 넓은 것을 아울러 깊게!"라는 표어로 선전되었다. 이처럼 '지대넓얕' 시리즈는 언뜻 모순적이게 보이는 두 명제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홍보되었다.

'지대넓얕' 시리즈를 완성된 '수험서'로 간주해 저자인 채사장의

---

[70] YES24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의 책소개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91465002

[71]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관련 동영상' 부분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72]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 출판사 리뷰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867542

[73] 교보문고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상세 이미지 참고. 강조는 필자.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0313186&orderClick=LEa&Kc=

[74] YES24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 상세 이미지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84

[75]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책소개 및 출판사 리뷰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4659792

관점과 생각을 그대로 암기할지, 또는 이를 '입문서'로 보고 '지대넓얕'에 소개되는 내용들에 관한 지적인 탐구를 시작해 나갈지의 여부는 결국 독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절에서는 리뷰 분석을 통해 실제로 '지대넓얕' 시리즈를 구매해 읽은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3.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 충족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독서를 사회적 목표가 상정된 채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독자들의 사회적 실천 행위이자 광의의 자기계발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실천의 측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자기계발을 다루는 관련 연구들이 주로 담론 분석이나 자기계발의 생산 측면에만 집중해 소비와 실천의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장희정, 2007; 전상진, 2008).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비판 받는 자기계발 분야의 도서를 다룰 때에는 수용 과정을 포함하는 실천 이론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Marquis, 2018).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경우에도 수용자 연구의 병행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 연구의 경우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Marquis, 2015), 리뷰 분석은 I장의 "연구 방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성자의 무의식의 표출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 '쉽게' 얻는 넓고 얕은 지식

먼저 리뷰 분석을 위해 2014년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부터 2020년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까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전권에 해당하는 5권의 도서들을 실제로 구매해 읽어본 독자들의 '구매자 리뷰'를 연구 자료로 하여 양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3대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북로그

리뷰(구매자), 회원리뷰(구매 리뷰), 마이리뷰(구매자) 총 390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독자들의 인식 및 반응을 살펴볼 수 있도록 NetMiner 4를 사용해 형용사를 추출한 뒤 빈도 분석을 수행해 시각화하자 [그림 18]과 같이 예상 가능한 형용사들이 주로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지대넓얇’ 시리즈 리뷰 Word Cloud(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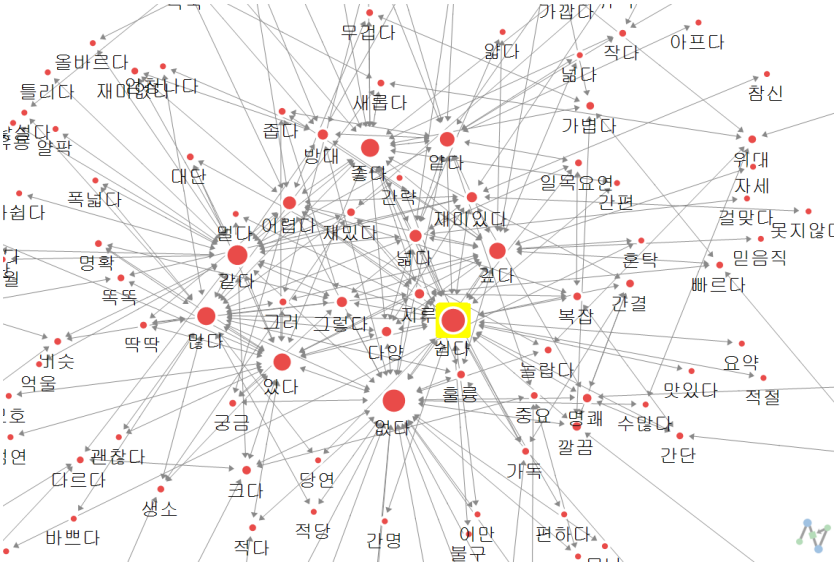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 높은 빈도수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도서명에 포함된 ‘얇다’, ‘넓다’ 등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도서 리뷰에서 흔히 언급될 수 있는 형용사들인 ‘같다’, ‘없다’, ‘좋다’, ‘있다’ 외에 ‘쉽다’가 7위에 해당했다는 점이다. ‘쉽다’와 함께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형용사인 ‘재미있다’ 등도 눈에 띈다.

구분	형용사	빈도수	구분	형용사	빈도수
1	얇다	568	16	다양	38
2	넓다	565	17	다르다	34
3	같다	341	18	이러	31
4	없다	319	19	수많다	29
5	좋다	279	20	크다	27
6	있다	269	21	지루	24
7	쉽다	251	22	작다	23

8	많다	186	23	궁금	23
9	깊다	83	24	익숙	22
10	어렵다	76	25	복잡	21
11	재미있다	70	26	힘들다	20
12	그렇다	56	27	비슷	19
13	위대	55	28	깔끔	18
14	방대	45	29	거대	18
15	재밌다	38	30	괜찮다	17

[표 2] ‘지대넓얕’ 리뷰 출현 빈도 상위 30개 형용사

그러나 NetMiner 4를 사용해 추출한 형용사를 바탕으로 한 노드가 연결망 내에서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심성을 평가하는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보면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19]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빈도 분석에서는 7위에 해당했던 형용사 ‘쉽다’가 연결 중심성 순위에서는 도서명에 등장하는 ‘얕다’와 ‘넓다’ 등의 형용사들보다도 상위인 ‘1위’로 올라선 것이다.



[그림 19] ‘지대넓얕’ 시리즈 리뷰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형용사)

구분	형용사	연결 중심성	구분	형용사	연결 중심성
1	쉽다	0.205128	16	명쾌	0.044872
2	없다	0.198718	17	깔끔	0.038462
3	같다	0.173077	18	크다	0.038462
4	많다	0.147436	19	가볍다	0.032051
5	좋다	0.147436	20	간결	0.032051
6	있다	0.141026	21	복잡	0.032051
7	깊다	0.128205	22	위대	0.032051
8	얕다	0.108974	23	재밌다	0.032051
9	어렵다	0.089744	24	진지	0.032051
10	넓다	0.076923	25	훌륭	0.032051
11	재미있다	0.064103	26	가독	0.025641
12	그렇다	0.057692	27	간단	0.025641
13	방대	0.057692	28	궁금	0.025641
14	다양	0.051282	29	그러	0.025641
15	지루	0.051282	30	다르다	0.025641

[표 3] ‘지대넓얕’ 리뷰 연결 중심성 값 상위 30개 형용사

이를 통해 ‘지대넓얕’의 구매 독자들은 ‘쉽다’는 형용사를 도서 리뷰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연결 중심성 순위 10위 내 ‘어렵다’와 같은 형용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독자들은 왜 ‘지대넓얕’ 시리즈가 ‘쉽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을까?

함께 자주 쓰인 형용사들을 살펴보면(Word Network), ‘어렵다’의 경우 지루(Weight 2.0), 복잡(Weight 3.0), 딱딱(Weight 2.0), 깊다(Weight 1.0) 등과 함께 사용된 반면 ‘쉽다’의 경우 주로 재미있다(Weight 14.0), 재밌다(Weight 8.0) 지루(Weight 4.0), 얕다(Weight 3.0), 많다(Weight 6.0) 등의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은 실제 독자들이 남긴

리뷰의 내용을 통해 맥락화함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의 판매 데이터를 보면 '지대넓얕'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6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보통의 경우 수도권 판매 비중은 70~80%에 달한다고 한다. 여성 독자의 비중 역시 52%에 해당해 보통 인문 서적의 70%보다 낮았다. 연령대별 결과는 20대, 40대 순이었다.[76]

알라딘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구매자 분포"를 보아도 '지대넓얕' 시리즈 5권은 40대 구매자(28.7%)가 20대 구매자(27.8%)보다 많았던[77]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을 제외하고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많이 구매했다. 이는 여타의 인문 도서와는 차이를 갖는 '지대넓얕' 시리즈 도서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2010년 출간된 인문 도서인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2010)의 경우 40대 구매자 비율이(34.1%) 20대 비율(21.7%)보다 크게 높았으며[78], 이는 2014년 출간된 『미움받을 용기』(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2014)의 구매자 비율(40대 31%, 20대 26%)[79]과 2021년 출간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어령, 2021)의 구매자 비율(40대 38.4%, 20대 7.5%)[80]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기한 판매 데이터의 경우와는 달리 리뷰들의 질적 분석을 통해 독자들의 성별 등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는 독자들이 작성한 도서 리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전 민음사 대표)는 '지대넓얕' 시리즈의 20대 구매자 비율이 예상과 달리 40대 구매자 비율을 능가한 결과를 두고 채사장이 진행 중이던 "팟캐스트[81]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

[76]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9일 검색.

[77] 알라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 구매자 분포 참고 (2022년 5월 9일 검색)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9841523

[78] 알라딘 『정의란 무엇인가』 구매자 분포 참고(2022년 5월 9일 검색)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092756

[79] 알라딘 『미움받을 용기』 구매자 분포 참고(2022년 5월 9일 검색)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8463031

[80] 알라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구매자 분포 참고(2022년 5월 9일 검색)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82121049

[8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에 따르면 팟캐스트의

것"이라고 분석했다.[82] 실제로 독자들의 리뷰에도 팟캐스트를 통해 '지대넓얕'을 처음 접했다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600쪽 정도 되는 **두터운 이 책을 덜컥 데려온 데엔 '채사장이잖아'라는 '지대넓얕' 팟캐스트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팬심이 컸다.** 채사장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라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궁금했다."[83]

"**이 책을 읽기 오래전부터 팟캐스트를 통해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지적 대화를 위한 얕은 상식이란 제목에 이끌려 언젠간 읽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84]

팟캐스트는 도서와 지속적으로 상승효과를 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2편을 다 읽고나서도 '지대넓얕'의 팟캐스트를 듣고 또 들으며 정주행하던 차에 제로가 나와서 구매하게 되었다."[85]

그러나 20대의 '지대넓얕' 선호 현상은 팟캐스트 외에도 IMF 이후 성공 및 자기계발 담론의 영향력하에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인문 신드롬을 겪으며 성장기를 거친 세대의 '넓고 얕은 인문학 지식 선호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인문학 신드롬'에 관한 내용, 그리고 효과적으로 넓고 얕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매체' 등의 언급은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린다. 이제는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인문학 관련 서적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도 소위 인문학을 언급하는 책을 몇 권 읽어보았다."[86]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대였다.

[82]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9일 검색.

[83] https://blog.aladin.co.kr/suku/12082045 (2020. 10. 21. 강조는 필자)

[84]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whddl2&artSeqNo=10462092 (2018.4.26. 강조는 필자)

[85] http://blog.yes24.com/document/13555661 (2020.12.29)

[86] http://blog.yes24.com/document/10329047 (2018.4.26)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보니, 종이책을 오랜만에 읽게 되었다." [87]

그러나 독자들은 더 나아가 넓고 얕은 지식을 '쉬운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했다. 전술한 것처럼 독자들은 '지대넓얕' 시리즈를 '수험서'로 표현하면서도 특히 '핵심 요약'을 위주로 '쉬운 학습'을 돕는 책의 구성을 이야기했다.

"책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삽화가 생각 외로 큰 도움이 된다. 핵심만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수험서**의 내용을 보는 듯하다." [88]

"책장을 넘기다보면 <중간정리>와 <최종정리>를 만나게 된다.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핵심요약집**인 셈이다." [89]

"**이해가 안되고 지겨워 질 즈음 나오는 각 편의 중간정리, 최종정리로 인해** 개념정리하고 복습하는 기분이다." [90]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준다. 중간중간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놓은 도표와 그림 덕분에 머릿속을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간략하게 정리된다." [91]

독자들은 현학적인 언어로 쓰인 넓고 얕은 지식의 백과사전식 기술이 아닌 보다 쉬운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넓고 얕은 지식을 원했다. 오디오 매체인 팟캐스트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텍스트 매체로서의 '지대넓얕' 도서를 언급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지대넓얕'을 알게 된 건 팟캐스트였는데, **엄청난 분량의 팟캐스트를 들을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대넓얕'이 책으로 출판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입했다.**" [92]

---

[87] http://booklog.kyobobook.co.kr/skyblue544/1793503/#0 (2018.5.13)
[88] http://blog.yes24.com/document/12662846 (2020.6.27. 강조는 필자)
[89] http://blog.yes24.com/document/11933851 (2019.12.27. 강조는 필자)
[90] https://blog.aladin.co.kr/700480182/9590703 (2017.9.12. 강조는 필자)
[91] https://blog.aladin.co.kr/795296194/11769058 (2020.6.7. 강조는 필자)
[92] http://blog.yes24.com/document/12789609 (2020.7.28. 강조는 필자)

"머리가 굳어서 **팟캐스트도 들을 땐 재밌는데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었던 전적이 있다. 책을 읽게 되어 다행인 건, 나의 경우 소리로 인한 기억보다 글자로 인한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것.** 역시 읽고 나면 잊어버릴테고 애초에 요즘은 글이 잘 읽히지도 않지만ㅠㅠㅠ" [93]

상기한 내용들 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지대넓얕' 시리즈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읽히게 한다"고 표현하는 내용은 리뷰들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한다. '지대넓얕' 시리즈는 독자들의 눈높이와 일치되게 넓고 얕은 지식의 '쉬운 취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고 이것이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2) 지적 대화를 위한 '친절한' 조력자

한 리뷰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을 "일반상식 요약정리집"[94]이라고 지칭한 것처럼 향후 일반상식 등의 시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잠재 '스펙'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리뷰를 작성한 다수의 독자들은 다음의 리뷰 내용처럼 '타자와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도서를 구매해 읽었다.

"그 결과, 알아두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로서 줄 수 있는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나, 정작 **사회에 나와 스펙으로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잡지식들을 얻게 되었다.** (중략)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95]

'지대넓얕' 팟캐스트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청취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의 참여자는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를 "어떤 대화에 참여할 때 주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라고 답했다(원지현, 2016:53). 도서 '지대넓얕' 시리즈를 읽고 리뷰를 작성한 독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후기들을 통해 알 수 있듯 넓고 얕은 지식은 깊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에서 실제로 충분한 효용성을

---

[93] http://blog.yes24.com/document/10408508 (2018.5.28. 강조는 필자)
[94] https://blog.aladin.co.kr/kairos/7745467 (2015.8.29)
[95] http://blog.yes24.com/document/15748324 (2022.1.12. 강조는 필자)

발휘한다.

"내가 **인문학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책 제목처럼 넓고 얕은 지식만 가지고 어느 정도 아는 척만 할 수 있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채사장님의 책이 딱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미있게 읽었다.** (중략) 이번에도 배운 얕은 지식으로 어디가서 **자랑 한 번 해 보아야 겠다.**" [96]

"관심은 있고, **아는척도 하고 싶은 분들..**(바로 필자;) **한번 쓱 읽어본 필자도 이정도로 활용을 해보았으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97]

아직 학생으로 보이는 한 독자는 다음과 같이 솔직한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내 초딩시절이 끝나갈때쯤 이 책이 나왔었는데 똑똑한척을 몹시 하고싶었던 13살의 나는 엄마가 빌려온 이 책을 이틀만에 읽어버렸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친구들한테 아는척도 해볼만큼 해봤다." [98]

그러나 다수의 리뷰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뷰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회사 생활을 암시하는 리뷰들은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는 책이길래 회사 직원분들 선물하는 김에 겸사겸사 내것도 구매해서 읽었다." [99]

"오늘날, 인문학이 유행이다. TV에서도 알쓸신잡같은 프로그램이, 회사에서도 인문학과 관련된 역사, 클래식, 삶의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을 초빙하곤 한다. (중략) 이 책을 읽고 토론해 보길 바란다." [100]

독자들이 '지대넓얕' 시리즈의 독서 행위에 참여한 이유는 상기한

---

[96] http://blog.yes24.com/document/11981373 (2020.1.10. 강조는 필자)
[97] https://blog.aladin.co.kr/705466112/8888046 (2016.11.7. 강조는 필자)
[98] http://blog.yes24.com/document/15888244 (2022.2.10)
[99]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jusili&artSeqNo=10548731 (2018.7.23)
[100] http://blog.yes24.com/document/10947848 (2018.12.29)

리뷰들의 경우처럼 단순히 '아는 척'으로 대표되는 스노비즘적 욕구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독자들의 리뷰들에서는 집단으로부터의 소외와 무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다.

"현실적으로 깊고 넓은 지식은 ..얻기 힘들다...그! 대안!!으로 필요한 것은 얕지만 넓은 지식!~ 이 책을 읽고나면~ 아마~ **사람들 대화에서 왕따 당하는 일은 없을듯!**~^^ 그렇다고 주위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긴 부족할테니~ 부족한 부분은 전문지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넓긴 하지만...얕으니까요~^^ㅎ"[101]

"그러나 책 제목에서 알려주듯이 이 책은 넓고 얕은 지식이다. 지적대화를 능수능란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그런 대화가 있을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한 가이드인 것이다.**"[102]

이들은 왜 소외당하는 것에 관한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는 단편적인 인문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넓은 기초 상식과 교양이 구별짓기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대넓얕' 시리즈는 "지식수준이 들통 날까 봐 두려운 당신에게", "지적 대화에서 늘 리액션만 해 온 당신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대넓얕>이 도와줄게요!", "잘 몰라서 속앓았던 상식 용어, 기초 이론, 지식 흐름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등 예비 독자와 '눈높이를 맞춘 공감형 문구들'을 사용해 지적 대화를 위한 니즈의 충족을 약속했다. "잘 몰라서 속앓은", "무지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 예비 독자들의 입장에서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않고 "이해받았다"는 감상을 주는 '지대넓얕' 시리즈의 '친절한' 기획은 보다 친근하게 다가왔을 수 있다.

"과학은 워낙 **무지했는데** 굵직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중략) 나란 사람 참 상식 부족이라고 반성이 되지마는ㅜㅜㅜ **지금이라도 알아서 어디냐고 위로**를 해본다."[103]

"나 같은 무지랭이는 감사할 뿐이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다. 그래서 소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내

---

[101] https://blog.aladin.co.kr/730558180/7964761 (2015.11.26. 강조는 필자)
[102] https://blog.aladin.co.kr/772217165/7414968 (2015.3.10. 강조는 필자)
[103] https://blog.aladin.co.kr/729893130/8447862 (2016.4.23. 강조는 필자)

책꽂이에 낱개 낱개로 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지대넓얕' 제로의 보면서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104]

'지대넓얕' 시리즈를 읽은 뒤 실제로 "똑똑해진 기분이 든다" [105]. "지식인이 된 것 같다"[106]고 표현하는 리뷰들도 다수 있었다. 무지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위의 리뷰의 표현과 같이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선별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때문도 있다. 아래 리뷰의 제목은 "TMI속에서 외줄타기하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습니다."였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정보가**,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흘러넘칠정도로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적갈증을 느끼던 시절이 아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판별력을 키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보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누구 앞에서 자신의 지적 허영심(그게 잘 포장해서, 현학적 허세)을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107]

그리고 선별화의 니즈 역시 "과학, 역사,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철학, 종교…. "도대체 이 심오한 주제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거야?", "이 책은 어렵고 방대해서, 눈앞의 현실이 시급해서, 때로는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교양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이 빠르고 쉽게 교양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등의 공감형 홍보 문구들을 통해 고민하는 독자의 눈높이와 일치된 상태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독자들은 타자와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수행되는 지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독서를 했고 이를 위해 넓고 얕은 지식을 구했다. 예비 독자들에게 '지대넓얕'은 이런 니즈를 '그들의 눈높이에서' 충족시켜줄 것을 약속하는 '친절한 조력자'로 다가왔고 타겟 독자층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이때 사회적 관계 내에서 스스로 무지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동기를 가지고 선별화 작업을 거친 '지대넓얕' 시리즈를 '인문학 교과서'로 간주해 해당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

[104] http://blog.yes24.com/document/12196254 (2020.3.10. 강조는 필자)
[105] http://blog.yes24.com/document/13501066 (2020.12.19. 강조는 필자)
[106] http://blog.yes24.com/document/11514052 (2019.8.1)
[107] http://blog.yes24.com/document/14552032 (2021.6.13. 강조는 필자)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독자들은 언제나 그처럼 단순하고 수동적인 존재 역시 아니기에 저자가 가진 관점을 파악하고 '지대넓얕'을 계기로 독서를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리뷰에 나타난 독자들의 반응은 양면성을 띠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났다."[108]

"그리고 의사들은 의료분야 이외에서는 문외한 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데, 자격지심 때문인지 나는 그러기 싫었다. 그래서 책도 미디어도 뭐로부터 받아들이던 간에 상관없이 지식에 대한 갈증은 엄청났었던것 같다. (중략) 내가 여태껏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은 내가 경험한 책중에 가장 간략하고 여러 교양분야의 **개념정립에 최고의 교과서**가 아닐까 싶다."[109]

"하지만 **너무 많은 주제를 너무 단순하게 정의한 관계로 오히려 편협**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면 입문자에게 독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110]

"먼저, '지대넓얕'은 너무 후려친다. 맞다. 철학과 세계관을 몇 가지로 뚝뚝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해버린다. **이러한 후려침은 이 시리즈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중략) 그런데 이 책은 주석을 깔끔하게 걷어냈다. 그래서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지만 아무래도 **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남는다."[111]

"단, 이 책은 역시 작가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다. **개인주관을 좀 더 배제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로 구성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112]

"그리고 작가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교수들이 쓰는 책처럼 딱딱하지 않다. **입문서의 개념으로 볼 것이라면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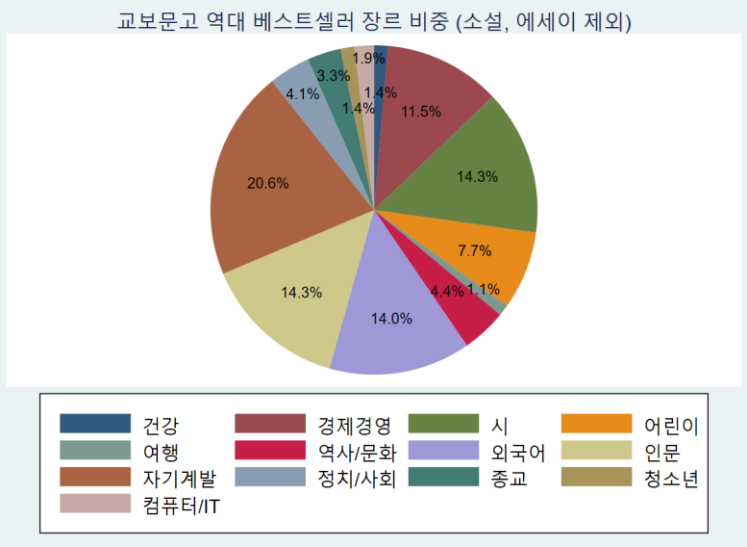
[108] http://blog.yes24.com/document/15748324 (2022.1.12. 강조는 필자)
[109] https://blog.aladin.co.kr/745526149/7445700 (2015.3.30. 강조는 필자)
[110] https://blog.aladin.co.kr/795498155/7268731 (2014.12.10. 강조는 필자)
[111] http://blog.yes24.com/document/13778105 (2021.2.6. 강조는 필자)
[112]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specialst1003&artSeqNo=10538045 (2018.7.18. 강조는 필자)
[113] http://booklog.kyobobook.co.kr/gacktv/1565432/#0 (2016.3.30. 강조는 필자)

IV. 인문학 베스트셀러의 사회 문화적 배경

독서는 '사회적 실천 행위'이며, 베스트셀러는 시대 상황적 요인을 반영해 탄생하는 '상황적 형성물'이다. 따라서 '지대넓얕' 시리즈의 놀라운 상업적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이 발생한 2010년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지난 40년간 3대 서점의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가장 많이 오른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총 56회 집계돼 압도적인 1위에 해당했던 영어 학습서인 '해커스 (뉴)토익' 시리즈였다. 저자 역시 해커스어학연구소(Hackers)의 'David Cho'였다. 1981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교보문고와 달리 알라딘, YES24의 경우는 1999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탓에 해당 시기의 베스트셀러가 과대 대표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해당 결과는 교보문고의 역대 베스트셀러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커스교육그룹은 공인어학시험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어학원, 공무원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는 해커스공무원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일하게 1981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베스트셀러들의 목록을 공개한 교보문고를 통해 소설과 에세이 장르를 제외하고 지난 40년간의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상위 13개)을 살펴본 결과 [그림 20]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0] 교보문고 역대 베스트셀러 장르 비중(소설, 에세이 제외)

구분한 세 시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장르들이었던 시 문학, 자기계발, 인문학 중 자기계발 분야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주로 사유와 성찰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실용성이 높은 도서에 대한 선호와 관련 있는 자기계발 담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생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성공은 독자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IV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지대넓얕' 시리즈가 출간된 2010년대 중반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해당하는 '인문학 신드롬'과 '지대넓얕' 현상의 대두가 갖는 연관성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1. 인문학 신드롬과 '지대넓얕'

1) '지식 가게 사장' 채사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일상화,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인해 대중에게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주어졌고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누군가 대신 선택을 해주는 "큐레이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절실해졌다. 특히 인문학은 여러 분과 학문을 매우 '넓게' 포괄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인문학을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인문학 신드롬과 함께 2010년대 중반 대중인문학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출판 시장을 포함해 인문학 소비 시장에는 이른바 "큐레이팅의 시대"가 대두한다(양은아, 2020).

'지대넓얕' 시리즈의 저자인 채사장은 전술한 것처럼 넓은 인문학적 지식을 한두 권의 책으로 '선별'해 주는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다. 채사장은 '지대넓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을 출간한 뒤 출판사 한빛비즈와의 인터뷰(저자의 한마디)에서 다음과 같이 큐레이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글을 쓰고 책을 냈지만 **언어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언어가 부담스럽다는 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모두 의미합니다. 우선 질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말이나 글은 거부감이 듭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말이나 글이 길어지면 쉽게 피로하게 되지요. **안 그래도 양질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까.** 쉽고 적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내용을 쉽게, 적은

내용을 적게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방대해서 혼란스러운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114] (한빛비즈, 2014/12/29. 강조는 필자)

채사장은 “어렵고 방대해서 혼란스러운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큐레이터를 자처했다. 필명인 채사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에 ‘지식 가게의 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인 ‘사장’을 더한 것이다.

“막 짓긴 했는데 나중에 부여한 의미는 ‘지식 가게의 사장’이라는 의미와, 체 게바라의 ‘체’와 자본주의의 꽃인 부르주아(사장)를 결합해 아이러니를 꾀했다.”[115] (한겨레21, 2015/3/10)

“의미 부여를 하려 했지만,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지식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그리고 제 성이 채 씨니까.”[116] (채널예스, 2015/3/31)

큐레이터이자 지식 가게의 사장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채사장은 넓고 얕은 지식을 소개하기 위한 호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대학에서 국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채사장은 대학 때의 전공이 아닌 졸업 후 사회에서 일하며 배운 내용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17]

채사장은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로 제대한 뒤 경제적인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교육)논술강사, 교육출판, 전업 주식투자, 부동산 임대업, 화장품 관련 창업 등[118]을 통해 경제 활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번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다.[119] 그러다 2011년 큰 사고를 겪은 뒤 책을 집필하게 된다.

---

[114] 한빛비즈. “한 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지식 여행서 - 지대넓얕”. 2014년 12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15]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16] 채널예스. “채사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2015년 3월 31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17] 채널예스. “채사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2015년 3월 31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18] 단대신문. “채사장 : 넓고 얕은 지식을 파는 지식가게의 사장”. 2017년 5월 16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19] 월간 HR Insight. “인문학은 인류의 오래된 놀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 2015년 6월 26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말인데요. 2011년 이전까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완벽한 유물론자죠.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2011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를 여행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습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한 번에 죽을 수 있는구나. 세상이 불안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치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명료하게 정리해놓으면 이런 불안감이 조금은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내려갔죠. 원래 관심사를 정리한 게 1권인데, 1권 원고는 2011년에 써놨어요.” [120] (채널예스, 2015/3/31)

“제대 후에는 ‘주식투자’ 등의 경제적인 부문에 관심이 많이 생겨 한동안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도에 제주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워낙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2011년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에서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당시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를 통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면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다.” [121]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4/29)

채사장은 사고 후 유물론자에서 티베트 불교, 베다 사상에 큰 관심을 가진 관념론자가 된다.[122]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그의 이력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로 생긴 인문학에 대한 관심 외에도 그가 가진 ‘사교육 논술 강의 및 교육 출판 경험’이다.

논술 시험은 방대한 출제 범위를 가지며 평가를 위한 ‘모범 답안’이 존재한다. 입시생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시간 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구조화해 논술 시험에 대비하는 강의를 진행해 본 채사장은 넓고 얕은 지식 구성에 특화된 역량을 습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계발 담론이 우세한 가운데 인문학 신드롬이 발생하며 공존하던 인문서와 실용서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자기계발서와 같은 인문 도서'를 출간하고자 했던 출판사의 니즈와도 상황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채사장을 발탁한 한빛비즈의 권미경

---

[120] 채널예스. “채사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2015년 3월 31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21]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채사장’ 인터뷰”.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년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https://moonpage.tistory.com/4

[122] 북DB. “채사장 “우리 최소한 알아듣기는 합시다””. 2015년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편집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저자가 논술강사를 해서 그런지 글의 비유가 쏙쏙 들어오고 중간 정리도 잘돼 있다.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은 글을 읽으며 저자의 평소 말투를 느낀다고 한다."[123] (경향신문, 2015/4/19)

"한빛비즈 : 저자가 **논술 강사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했습니다. 이분이 강사 출신이다 보니 지금도 판서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판서로 정리한 내용이 도식으로 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큰 주제를 다루다보니 **중간마다 다시 되새기는 게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채사장의 강의 스타일을 그대로 책에 옮겨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124] (프레시안, 2015/7/24. 강조는 필자)

또한 논술 강사로서의 경험은 넓고 얕은 지식에 대한 그의 관점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3들이나 수험생한테 논술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입시를 보면 수치적으로 보여요. 같은 나이 또래가 60만 명 정도 되고, 9등급제로 나눠 있잖아요. 5등급이 가장 인원이 많고. 근데 이상하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3등급을 넘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몰차게 대하는 거에요. 그것도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등급제에서 5등급이 가장 평범한 학생들인데."[125] (딴지일보, 2017/3/28. 강조는 필자)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차별성이 있다면 중윗값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시간보다 사회 생활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학생들 논술을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그 경험으로 일반적인 학생을 이해할 수도 있었고요.** 정작 학생들은 스스로를 모르거든요. 65만 명 수험생을 100명이라고 치면 8.5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지방권이거든요. 25%는 고졸로 남고요. (중략) **글을 쓸 때도 당연히 중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말하는 방식과 관심 있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게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아요.**"[126] (땡스기브, 2017/8/8. 강조는

---

[123] 경향신문. "구어, 책이 되다". 2015년 4월 1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24]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6일 검색.
[125] 딴지일보. "[이너뷰]지대넓얕 채사장과 삼라만상 인터뷰". 2017년 3월 28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26]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넓얕> 채사장 -보통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권합니다". 땡스기브 블로그. 2017년 8월 8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필자)

"이 책의 진짜 이름은 **'소통을 위한 인문학'** 인데요. 의사나 교수, 각종 업계에 종사하는 판매원 등 모든 사람들은 깊고 좁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대화하는 건 힘들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선 공통분모가 필요한데 각자의 분야에 대한 깊고 좁은 지식만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전문지식처럼 깊이가 있으면 안 돼요.** (중략)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경험을 확장시키는 행위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화란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 현대미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걸 알아듣는 정도만 된다면 괜찮아요. 이 책은 누군가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말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잘 듣기 위한 지식인 셈이죠.**" [127] (북DB, 2015/4/29. 강조는 필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를 의미한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독자들은 넓고 얕은 지식을 통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을 넘어 발화를 통해 '지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앞부분은 이 책의 목표이고 뒷부분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적이고 심오한 대화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없이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공통분모를 일반적으로 인문학, 교양이라 부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양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교양의 열 가지 분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와 만나도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 깊은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8] (한빛비즈, 2014/12/29. 강조는 필자)

---

https://m.blog.naver.com/tgive/221069284721

[127] 북DB. "채사장 "우리 최소한 알아듣기는 합시다"". 2015년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28] 한빛비즈. "한 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지식 여행서 - 지대넓얕". 2014년 12월 29일. 2022년 4월 30일 검색.

책에 대한 저자의 소개는 열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넓고 얕은 인문학 지식인 기초 교양을 통해 주눅 들지 않고 지적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을 제공한다.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독자들도 채사장의 말처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그와 같이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을 읽으면 어디 가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게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한다."[129]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4/29)

"혹자는 이 책을 읽으면 남에게 잘난 체를 할 수 있냐고 물어서, 약간 놀랐어요."[130] (월간 HR Insight, 2015/6/26)

인문서 시장은 깊은 전문지식을 다루거나, 추상성이 높아 성찰과 사유를 촉진할 수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있는 도서가 아닌 자기계발의 수단으로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양은아, 2020:75) '쉽고 부담 없는' 인문학 서적을 선호하고 있었다.

채사장은 "기존 인문학 서적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생각에 책에서 개념어나 어려운 말을 최대한 배제하고 구어체로 이야기하듯" 쉽게 책을 썼다고 밝혔다.[131] 이는 출판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인문서 시장에서 효율적인 큐레이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문학 열풍으로 증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록 저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통적 의미의 지식 생산자인 교수, 저술 경력이 있는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능력이 뛰어나다면 원고를 출간해줄 유인이 커졌던 것이다. 권미경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문학 쪽은 특히 기존 학자나 교수 외에 일반인 저자가 없어요. 채사장처럼 역량 있고 자신만의 콘텐트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132]

---

[129]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채사장' 인터뷰".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년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https://moonpage.tistory.com/4

[130] 월간 HR Insight. "인문학은 인류의 오래된 놀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 2015년 6월 26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131]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4월 22일 검색.

[132] 중앙일보. "아이디어 내고 직접 펜 들고, 진화하는 편집자가 흥행 이끈다".

(중앙일보, 2016/6/26)

채사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인문학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인성을 갖춘 넓고 얕은 지식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넓고 얕은 지식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사람들 사이에 대화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합니다."[133]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4/29. 강조는 필자)

"그렇죠. 최소지식.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출판사의 의도와 미디어의 의도가 만나가지고 제가 인문학이나 교양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꾸며졌는데, 실제로 저는 인문학을 잘 모르기도 하고,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인문학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인문학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134] (딴지일보, 2017/3/28)

채사장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인문학 지식'이라는 2010년대 중반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방식의 도서를 집필했다. 그리고 이것이 출판사의 니즈 등과 상황적으로 맞아떨어짐으로써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비로소 세상에 나와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나, 미술관에 가면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중략)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 (채사장, 2014)

2016년 6월 26일. 2022년 4월 26일 검색.

[133]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채사장' 인터뷰".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달빛페이지 뉴스저널. 2015년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https://moonpage.tistory.com/4

[134] 딴지일보. "[이너뷰]지대넓얕 채사장과 삼라만상 인터뷰". 2017년 3월 28일. 2022년 4월 29일 검색.

2) '지식 교양' 팟캐스트 '지대넓얕'

아무리 저자의 역량이 좋더라도, 흥행 가능성이 높은 원고가 있더라도 베스트셀러의 탄생에 필수적인 시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잠재 구매자들인 예비 독자들에게 적절히 홍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독일, 프랑스의 베스트셀러들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백과사전 등재, 수상 경력과 같은 문화적 신성함의 지표보다 저자의 유명세와 같은 시장 논리에 의해 더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했고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후자에 해당하는 도서들이 더 오래 머무는 양상을 보였다(Verboord, 2011). 국내의 베스트셀러 역시 작품성이나 독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기보다는 대중 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기태, 2015).

2006년~2015년 국내 인문학 베스트셀러의 탄생에도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며(박치완·박성준, 2016), 현재 매스미디어는 대중인문학의 장을 재편하고 있다(양은아, 2020). 특히 2010년대 이후 시민인문학의 융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현상 중 하나는 '팟캐스트'와 같은 대중매체에서의 인문학 강좌였다(천정환, 2015:103-104).

III장에서 상술한 것처럼 채사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출간하기 전 '무명의 30대 젊은이'[135]들과 동명의 '지식 교양' 팟캐스트[136]를 진행하고 있었다.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은 주재자인 채사장을 제외하고 기독교 신앙과 과학에 독실한 '이독실', 동양 철학과 명상학을 공부한 '김도인', 순수 학문에 관심이 많은 '깡선생' 이었다.[137]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그저 독특한 네 명이 모여 각자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재밌게 인문학을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138] 팟캐스트는 첫 책이 출간되기 9개월 전인 2014년 4월 시작돼 2017년 8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

[135]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5월 2일 검색.

[136] 한국일보. ""다시 한번 삶을 원하느냐?" 화살을 찾아 떠난 소년이 마주한 물음". 2021년 12월 31일. 2022년 5월 2일 검색.

[137] 매일경제. "'지대넓얕' '피키캐스트' 인기…얕지 않은 '얕음' 지닌 대중문화가 볍고 빠른 꿀팁에 매혹되다". 2015년 5월 6일. 2022년 5월 2일 검색.

[138] 시애틀N. "팟캐스트 '팬심'이 베스트셀러 동력?". 2015년 2월 28일. 2022년 5월 2일 검색.

2019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과 2020년 이전 두 권의 책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가 각각 출간되었다.

같은 콘셉트와 이름을 가진 팟캐스트의 존재는 차후 출간된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고 특히 출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이 무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예비 독자들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지대넓얕' 콘텐츠는 무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화 산업의 소비자들은 도서를 비롯해 어떤 상품이 '친숙할 경우'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Keuschnigg, 2015). 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출판사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활용했다.

"팟캐스트는 작년 4월에 시작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독특한 사람이 있어서 재미로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잘 팔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 해석이고요."[139] (채널예스, 2015/3/31)

지대넓얕의 출판사인 한빛비즈 측은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지대넓얕'을 낸 출판사 한빛비즈는 "**확실히 책의 초기 판매에 팟캐스트의 팬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빛비즈의 권미경 편집자는 "**팟캐스트의 인기를 보아 팬들이 먼저 책을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 예약판매를 통해 판매량을 올렸고 그후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팬들의 구매 자체가 엄청 많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의 성원이 견인차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140] (시애틀N, 2015/2/28. 강조는 필자)

특히 출판사의 경우 도서의 출간을 기획하기 전부터 이미 팟캐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출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팟캐스트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저희가 **팟캐스트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3년 전입니다**. (중략) 그래서 출판사가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회사 내부 이야기도 하고, 신간이

---

[139] 채널예스. "채사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2015년 3월 31일. 2022년 5월 2일 검색.
[140] 시애틀N. "팟캐스트 '팬심'이 베스트셀러 동력?". 2015년 2월 28일. 2022년 5월 2일 검색.

나오면 저자를 불러 방송도 진행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팟캐스트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팟캐스트를 학습했던 경험이 <지대넓얕>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처음 확보할 때부터 팟캐스트가 이 책의 마케팅을 견인하리라는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한 사전 마케팅의 가치가 콘텐츠만큼 힘을 발휘하리라고 봤습니다.**" [141] (프레시안, 2015/7/24. 강조는 필자)

실제로 채사장의 팟캐스트는 가장 초기 단계의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었다. 처음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의 출판사 제공 책 소개(교보문고)에는 다음과 같이 팟캐스트가 언급된다.

"글쓰기와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넓고 얕은 지식'을 알리고 있는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지대넓얕》을 책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42]

팟캐스트는 곧 두 번째로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의 책 소개(YES24)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

"누적 다운로드 150만, 철학 분야 1위, 팟빵 종합 10위
화제의 팟캐스트 [지대넓얕] 진행자 채사장의 두 번째 책 《지대넓얕》" [143]

팟캐스트는 YES24의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144]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권미경 편집자(웨일북 대표)가 언론을 통해 채사장 외에도 팟캐스트를 함께 진행한 타 진행자들의 개별 저서 역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145] 실제로 2016년 김도인의 개별 저서를 출간한 사례를 보면, 출판 결정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았음을

---

[141]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5월 2일 검색.
[142]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94120966 (강조는 필자)
[143]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867542
[144]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81236
[145] 중앙일보. "아이디어 내고 직접 펜 들고, 진화하는 편집자가 흥행 이끈다". 2016년 6월 26일. 2022년 5월 2일 검색.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대넓얕의 출간은 팟캐스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2014년 4월 팟캐스트의 다운로드 횟수는 한 달에 1천 회 정도였으나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도서가 출간된 뒤 2015년 2월에는 월간 다운로드 횟수가 80만 건으로 800배 증가했고[146] 2016년에는 총 다운로드 횟수가 1억회를 돌파했다.[147] 팟캐스트가 도서의 출간과 초기 마케팅을 돕고 도서의 성공은 팟캐스트 청취자의 증가로 이어졌던 것이다.

무명작가의 데뷔작이었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언론의 서평 하나 없이 출간 10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148] 확보해 둔 예비 독자층과 팟캐스트로 인한 홍보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팟캐스트는 2019년과 2020년까지 '지대넓얕'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 팟캐스트는 진행자들이 개설한 '지대넓얕' 청취자 카페,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별 모임 등을 만들어내며(김유선, 2017; 원지현, 2016) 예비 독자들이 '지대넓얕'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토요 인문학 콘서트>(2015), <김제동의 톡투유>(2015), <말하는대로>(2017), <어쩌다 어른>(2017), <양식의 양식>(2019.12~2020.2) 등 채사장이 출연한 여러 방송들을 통해 인문학 신드롬과 '지대넓얕' 열풍은 이어졌다.

상기한 바와 같이 팟캐스트와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대넓얕'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수많은 팟캐스트 방송 중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채사장의 팟캐스트가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거시적인 인문학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지대넓얕'의 인기 요인을 묻는 질문에 채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실 책은 2011년에 1권이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읽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고, 책을 내 줄 출판사도 없었다. 팟캐스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낸 거다. 옛날 제목 그대로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으로 하려 했는데 출판사가 반대하더라(웃음). (중략) 인문학이나

---

[146]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5월 2일 검색.

[147] 이투데이. "[출판사 첫 베스트셀러] 웨일북, 채사장의 '시민의 교양'". 2016년 8월 12일. 2022년 5월 3일 검색.

[148] 매일경제. "'지대넓얕' '피키캐스트' 인기…얕지 않은 '얕음' 지닌 대중문화가 볍고 빠른 꿀팁에 매혹되다". 2015년 5월 6일. 2022년 5월 2일 검색.

교양에 대한 열광은 아닌 것 같다. 인문학에는 트렌드가 없으니까. 기대 없이 듣고 기대 없이 읽었는데 새롭다는 느낌을 받은 것 아닐까.”[149] (매일경제, 2015/5/6)

그러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문학 신드롬은 2010년경 시작돼 2010년대 중반 정점을 맞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문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변화했다. 2014년, ‘인문학’을 다루는 '지식 교양' 팟캐스트가 경제·경영 분야의 자기계발서를 출간하던 출판사의 눈에 띈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2. 인문 교양의 자본화

1) ‘스펙’으로서의 인문학

'힐링'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졌던 인문학은 2010년 이후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며 점차 이전과는 다른 맥락 안에 위치하게 된다. 인문학은 “비판과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 안팎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고 변혁해 나가도록 자극하는 학문”으로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자각하고 발전시키도록 ‘성찰적 삶의 기술’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송현·안관수, 2013).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이후의 불안감과 생겨나는 실존적(인문학적) 질문들에 대한 갈증이 만들어낸 인문학 공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인문학 제도화 단계를 거쳐 '비즈니스화'된 뒤 출판계 등에 전이”되었다(양은아, 2020:75).

인문학의 필요성은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시되었을까?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인문학 신드롬은 2010년대 중반 정점을 맞았다. 정부가 2007년과 2014년에 각각 발표한 인문학 진흥정책들 사이 일어났던 사회적 변화는 ‘기업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 베스트셀러 및 강좌의 확산’으로 요약된다(손정훈·김민규, 2016).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던 실천적 인문학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대중의 교양을

[149] 매일경제. “‘지대넓얕’ ‘피키캐스트’ 인기…얕지 않은 ‘얕음’ 지닌 대중문화가 볍고 빠른 꿀팁에 매혹되다”. 2015년 5월 6일. 2022년 5월 3일 검색.

위한 인문학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2007년과 2014년 사이 인문학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손정훈 · 김민규(2016:46)는 그 기점을 2010년경 일어났던 “아이폰 인문학 바람”으로 본다. 2009년 11월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혁신 제품’ 아이폰은 당시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2010년 아이폰에 담긴 인문학의 위력을 이야기하며 현시대를 '인문경제의 경쟁 시대'로 정의한 기사[150]가 보도되었으며 2011년에는 한국에서 “창조적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기업 비즈니스와 자기계발의 지적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바이블”로서 홍보된 도서 『CEO 스티브잡스가 인문학자 스티브잡스를 말하다』(이남훈, 2011)가 출간되었다.[151]

중퇴하기 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던 그의 이력과 애플의 성공 사례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인문학적 상상력에 있다는 결론과 함께 인문학 신드롬을 이끌었다. 이는 비단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가이자 대학에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던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과도 연관지어졌다.[152]

2008년 3대 서점 모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자기계발서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가 저술한 『리딩으로 리드하라(세상을 지배하는 0.1퍼센트의 인문고전 독서법)』가 2011년 3대 서점 모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생각하는 인문학 : 5000년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공부법』이 2015년 YES24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이 시기에는 ‘인문학 성공 신화’를 다룬 도서들이 수차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문학은 혁신 제품을 탄생시킨 천재들의 이면에 자리한 ‘성공 요인’으로 지목되며, 기업가적 관점에서 도구적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인문학 진흥 정책들과 함께 제시되었던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 경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하에 위치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인문학 진흥 정책이 단지 인문학의 위기라는

---

[150] 동아일보. “[시론/조지형]아이폰에 담긴 인문학의 위력”. 2010년 8월 4일. 2022년 4월 20일 검색.

[151] 아주경제. “<새책> CEO 스티브잡스가 인문학자 스티브잡스를 말하다”. 2011년 9월 25일. 2022년 4월 20일 검색.

[152] 조선비즈. “스티브 잡스의 교훈…'인문학과 IT의 결합'”. 2011년 8월 26일. 2022년 4월 20일 검색.

개별 분과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손정훈 · 김민규, 2016:55), 기업의 관심을 받은 인문학이 취업 시장 등에 반영되며 그 성격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달라진 양상을 보이게 된다.

입시 및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은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정옥년, 2018) 철학적(인문학적) 사유 능력이라기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단편적 지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10년경 이미 대입 시험[153], 공무원 시험[154], 대기업[155] 및 공사·공단의 입사 시험[156] 등에는 ‘객관식’으로 구성된 ‘일반(시사)상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2015년경이 되면 일반상식에도 사회적 트렌드인 '인문학'이 반영되고[157], 대입 시험의 화두로 '인문학 고전 읽기'가 부상한다.[158]

이 시기 대기업과 은행 등은 주관식 논술 시험과 면접 등으로 구성돼 '지원자가 읽은 인문학 서적'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인문학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이르지만[159] 이 역시 시간 제약이 존재하는 탓에 일반상식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성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총망라하며 넓은 '출제 범위'를 가지는 인문학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단편적인 지식을 위주로 빠르게 습득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구태여 인문학을 전공할 필요는 사라지는 것이다. 선다형 시험에서 정답을 맞히거나 논술 및 면접에서 인문학적 지식을

---

[153] 한겨레. “전공적성검사 반영 대학과 준비방법”. 2009년 5월 31일. 2022년 4월 21일 검색.

[154] 이투데이. “공무원시험, 틈새를 노리면 합격이 보인다!”. 2011년 10월 7일. 2022년 4월 21일 검색.

[155] 한국경제. “SSAT를 뚫어라…삼성맨이 보인다”. 2010년 3월 8일. 2022년 4월 21일 검색.

[156] 조세일보. “국민연금공단 신규채용, 내달 3일 필기시험실시”. 2011년 6월 8일. 2022년 4월 21일 검색.

[157] 가령 2016년 1월 출간된 시대고시기획의 『2016 똑 소리나는 일반상식』의 책 소개란에는 신 채용 트렌드인 ‘인문학’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9160851

[158] 베리타스 알파. “대입 화두로 급부상한 인문학‘고전'읽기..22일 '고전콘서트'”. 2014년 3월 21일. 2022년 4월 21일 검색.

[159] 한국경제. “[취업에 강한 신문 한경 JOB] 국민銀, 신입 100명…현대산업, 인문학 테스트”. 2015년 4월 13일. 2022년 4월 21일 검색.

언급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기업 선호도가 높아 취업에 유리한 타 전공을 선택한 뒤 학습서를 통해 영어를 별도로 공부함으로써 자본을 취득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 위기를 맞는 동시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인문학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014년 세계인문학포럼의 주제였던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인문학 대중화는 학자 및 학문 후속세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진정일, 2015).

노명우 아주대 교수(사회학) 역시 "지금 시대는 얕은 지식이 매력적인 시대"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면서 변형된 개념의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 이때 기업이나 대중 출판 시장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사실 깊은 지식이 아니라 실용적 요구가 있는 얕은 지식이다. 예전에 취업준비생들이 보던 필독서 '스파 상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인문학'으로 이름을 바꾼 셈이다. '얕은 지식'이 매력과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160] (한겨레21, 2015/3/10)

그렇게 인문학은 넓지만 얕은(단편적인)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화된 '스펙'으로 변모한다(손정훈 · 김민규, 2016:56). 인문학이 학습의 대상이자 사회 이동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적 맥락에서 인문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자본 획득의 유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학생의 경우 '교과 공부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21.2%)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다. 이처럼 시간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독자들이 스펙으로서의 인문학적 지식을 압축적으로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이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등 인문학의 각종 분야를 단 두 권에 모두 아우르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었던 것이다.

---

[160]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4월 22일 검색.

2) 문화 자본으로서의 ‘기초 상식’

자기계발 경쟁은 단순히 대입 준비나 취업을 위한 구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외모, 언어, 심리, 취미, 여행, 힐링, 교양 등으로 확대되어 포괄적인 삶의 양식, 즉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김건순 · 김남진 · 오세일, 2017). 상기한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서 정부의 인문학 진흥 정책들은 자기계발을 통한 문화 자본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쳤고 인문학은 자기계발과 동의어가 되는 동시에 인문 교양으로 대체돼 부르디외가 말하던 '구별짓기'에 사용되는 등 서동진의 평가와 같이 '문화 자본'이 되었다(손정훈 · 김민규, 2016).

인문학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쓸모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에 대응하는 가치를 환기시키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산출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교양 역시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현상보다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로고스를 추구하는 마음과 감각을 균형있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양은아, 2020). 그러나 2010년 이후 인문학의 성격은 대중화와 함께 변화했고 인문학은 사회적으로 혁신 제품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성공 요인’, 사회 이동의 유인을 지니는 ‘스펙’, 학습의 대상이 되는 '단편적 지식’,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대중인문학 신드롬이 낳은 인문학 공부는 사용 가치가 있는 자기계발로 인식되고 있으며 변이된 대중인문학은 “흥미 위주의 넓고 얕은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인문학 본연의 정신인 현실에 대한 비판과 삶에 대한 성찰정신에서 이탈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양은아, 2020:83-85). 즉, 결과적으로 인문학은 본연의 성찰성을 상실한 채 사회적 인정을 위해 축적되어야 할 ‘문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인문학이 ‘자본에 봉사하는 인문학’, ‘인문학의 도구화’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천정환(2015:113)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그는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출간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의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를 인용하며 이것이 "호오가 엇갈리지만 오늘날 '인문학'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여러가지 면에서 짚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천정환, 2015:124).

Liessmann(2018)은 정신의 자본화에 따라 사유와 성찰 없이 파편화된 단편적인 지식만 존재하는 상태인 “몰교양”을 이야기하며 현재 우리가 ‘몰교양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잠재력 계발을 지향하는 교양(Bildung) 대신 지식 경영(Wissenmanagement)이 시대적 화두가 됨에 따라 교양 대신 원자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지식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Liessmann, 2018:78).

동시에 지난 60년간 미국에서 사회적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베스트셀러는 100% 가까이 증가했다(Rovenpor et al., 2016). 이때 사회적 나르시시즘(Societal Narcissism)은 임상적 나르시시즘(Clinical Narcissism)과 구분되며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 밖에서 개인의 자아를 패션인으로 설정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 밖에 놓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인정 투쟁이나 자아 연출 등을 하지 않는(한준 외, 2018)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narcissistic individualism)”와도 다르다. 자기도취(self-absorption)를 의미하는 사회적 나르시시즘에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도 포함되기 때문이다(Rovenpor et al., 2016:418).

한국의 '지대넓얕'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제목이 함의하듯 ‘지적 대화’는 타자와의 비교가 가능한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자아 성찰이나 지식의 이해를 통한 자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대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문화 자본으로 기능하는 ‘지식으로서의 교양’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때 '책과 독서'와 같은 '지적인 취향'은 구별짓기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오지현 외, 2021:209).

지적 대화는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입시생이나 구직자가 아니라 회사원이나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문화 자본의 경쟁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자기계발을 수행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조차 과반 이상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161]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대화는 단시간 내 이루어지며 이러한 한담(Small talk)들에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적 대화에 대비하기 위한 ‘넓지만 얕은 지식’이다.

[161] 여성가족부. 2020. 『제4차 가족실태조사』.

‘지대넓얕’ 시리즈를 출간한 한빛비즈는 주로 경제·경영 분야의 자기계발서를 출판하던 ‘경제금융출판사’로서 채사장을 발굴한 출판사 한빛비즈의 권미경 편집자[162]는 이미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등 인문학을 다루는 “대중을 위한 초보 교양서”를 출간해오고 있었다.[163]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한빛비즈의 권미경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빛비즈는 ‘지금 당장 ~하라’라는 유의 경제·경영 쪽 자기계발서 시리즈가 구축돼 있고, 이 시리즈에 충성도가 있는 30대 중·후반 남성 독자를 갖고 있다. 책을 펴내면서 이 30대 남성 독자들이 인문학에 관심 갖고 있음을 알게 됐고, 이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교양서를 고민하던 중에 <지대넓얕>을 펴내게 됐다. 실제 독자들 가운데 30대 남성의 비중이 높고 40대 남성들로 구매층이 넓어지고 있다.”[164] (한겨레21, 2015/3/10)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빛비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대넓얕>은 인문학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책의 독자가 기존 인문학 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문학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장은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단점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취업이 지상 과제가 되었고, 이 때문에 **스펙 쌓기에도 허덕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라면 인문학에 갈증을 느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기를 계발하려는 욕구에 더해 **자신의 약한 지식의 뿌리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인문 교양 서적이긴 하지만 독자는 **자기 계발서를 선택하듯 이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165] (프레시안, 2015/7/24. 강조는 필자)

전술한 것처럼 ‘지대넓얕’ 시리즈는 ‘필수 교양’, ‘기초 상식’,

---

[162] 채사장을 발굴한 권미경 편집자는 이후 새 출판사(웨일북)을 차린 뒤 대표가 되었고 2019년 이후 ‘지대넓얕’ 시리즈의 나머지 세 권을 출간하며 저자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채사장(본명 채성호)은 권미경 편집자와 함께 웨일북의 대표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신설법인 현황] (2015년 10월2일~2015년 10월8일) 서울”. 2015년 10월 9일. 2022년 6월 9일 검색.
[163] 중앙일보. “아이디어 내고 직접 펜 들고, 진화하는 편집자가 흥행 이끈다”. 2016년 6월 26일. 2022년 4월 26일 검색.
[164]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4월 26일 검색.
[165] 프레시안. “<지대넓얕> 채사장은 어떻게 스타 저자가 되었나?”. 2015년 7월 24일. 2022년 4월 26일 검색.

'기초적인 지식' 등의 문구와 함께 상사 등과의 대화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홍보되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세한 자기계발 담론과 인문학 신드롬이라는 기후 조건하에서 인문 교양의 자본화라는 토양의 양분을 공급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왜 인문 분야에 속한 다른 전문적인 도서가 아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가 그토록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결론적으로 [그림 21]과 같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인문학 신드롬과 인문 교양의 자본화, 팟캐스트와 미디어의 영향력,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 직관적이고 솔직한 마케팅 전략,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 충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적 사슬의 연쇄를 통해 '우리 시대 대표 인문 교양서'[166]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 경로

3.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0년대 초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던 실천적 인문학은 2010년대의 인문학 대중화 단계를 거치며 그 성격이 변화했다. 2010년대 인문학 진흥 정책들과 함께 일어난 인문학 신드롬은 '기업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 베스트셀러 및 강좌의 확산'으로 요약된다(손정훈 · 김민규, 2016). 실제로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66] YES2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책소개 참고 http://www.yes24.com/Product/Goods/86545658

2010년 이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인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2010년대 중반 출간돼 전례 없이 놀라운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우리 시대 대표 인문 교양서”가 된 ‘지대넓얕’ 시리즈는 시대상을 반영해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서라고 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지대넓얕’의 저자가 취하는 태도와 책의 내용은 흥미로운 동시에 문제적이며 이는 현재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짚어준다(천정환, 2015:124).

‘생존주의 레짐’이 전개된 생존 지향적 한국 사회는 ‘생존에 기능적인 힘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당화된 정치와 경제 영역을 과잉 가치화했고 사회적 가치는 억압하였으며, 이는 “생존에만 급급해 보신적 가치에 몰두하며 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낳았다(김홍중, 2017). 특히, 세 번째 ‘생존주의 레짐’의 물결이 일게 된 IMF 경제 위기 이후 등장한 한국 사회의 ‘성공’ 담론은 맹목성을 띠었다(권오헌, 2006). 성공의 맥락은 배제된 채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효율성’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때 투입에는 시간과 노력이 포함되며 산출은 돈과 명예로 상징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부르디외가 말한 경제 자본의 축적을 위한 스펙과 사회 자본 및 문화 자본의 축적을 위한 교양 또는 기초 상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경쟁 상황에서 이 모든 과정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상기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국민독서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듯 능동성을 요구하는 깊은 사유[167]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큰 독서[168]보다는 스크린 상의 짧은 지면에 핵심 요약을 위주로 제시돼 단시간 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한 웹 서핑이나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터넷상의 ‘스크린 읽기’는 ‘훑어 읽기’, ‘F자형 읽기’, ‘지그재그 읽기’ 등의 특징을 보인다(Liu, 2005). 도서라고 하더라도 역대 베스트셀러 도서들의 장르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본 축적에

[167] 팟캐스트와 같은 오디오북이나 동영상의 경우보다 줄글을 통해 정보를 처리할 때 뇌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며 상위인지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2021:237).

[168] 독서의 대상이 되는 ‘책’은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의 정의와 같이 “표지를 제외하고 적어도 ‘49페이지’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의미한다.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ook". Encyclopedia Britannica, 18 Jul. 2019, https://www.britannica.com/topic/book-publication. Accessed 4 May 2022.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서와 학습참고서가 선호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시험이라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정 분량 이상의 학습량을 소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습 참고서는 여전히 타 매체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같은 분량을 가정할 때 텍스트 매체인 도서는 인터넷 강의나 팟캐스트 등의 영상 및 오디오 매체보다 밀도가 높아(김성우 · 엄기호, 2020:207-210) 단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암기 및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국내 3대 서점의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가장 많이 집계된 도서가 영어 학습서인 '해커스' 시리즈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정량화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깊지만 좁은 지식이 아닌 얕지만 넓은 지식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대넓얕' 시대(정경영, 2015)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추하며 깊고 넓게 사유할 시간적인 여유는 더 이상 없다. 자기계발서도 이상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으며 만성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반영해 시간 부족을 회피할 수 있는 조언을 건네고 있다(Larsson & Sanne, 2005).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서 '지대넓얕'이 탄생했다. 인문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듯 성인 독서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169] 출간되었으며 학습서의 형식을 강하게 띠고 있다. 저자인 채사장 역시 이를 반영해 '지대넓얕'의 타겟 독자층을 설정하였다.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소수의 헤비 독자들도 있지만 1년에 한두 권 읽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170] (딴지일보, 2017/3/28)

무엇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대넓얕' 시리즈는 인문학 신드롬 이후 '인문 교양의 자본화'와 함께 기업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으며 스펙이자 문화 자본으로서의 단편적 인문학 지식이 선호되는

---

[169]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성인 및 학생의 종이책 독서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독서율은 1994년 이래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71.4%) 이후로는 2021년(40.7%)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교적 최근 집계를 시작한 전자책을 포함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170] 딴지일보. "[이너뷰]지대넓얕 채사장과 삼라만상 인터뷰". 2017년 3월 28일. 2022년 5월 5일 검색.

사회적 변화에 크게 힘입어 성장했다.

제목이 표상하는 것처럼 '지대넓얕' 시리즈는 사회적 인정에 해당하는 '지적 대화'를 목표로, 효율적인 '넓고 얕은 인문학 지식'을 수단으로 제안하는 일관된 마케팅 전략과 함께 독자들에게 제시되었다. 독자들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부합하는 '지대넓얕' 시리즈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인문형 자기계발서'라는 출판사의 포지셔닝이 시사하듯 인문 도서 역시 자기계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김홍중(2009)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생존자)와 도덕(생존주의)에 물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사회적 에토스로서의 신자유주의인 '육화된 신자유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며 '도구적 성찰성'을 언급한다. 성찰의 행위 그 자체가 목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자기-목적적 성찰성)와는 반대로 성찰 행위가 다른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 이를 도구적 성찰성(instrumental reflexivity)으로 명명한 것이다. 두 유형의 성찰성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최종적 목표에 대한 성찰 여부이다. 도구적 성찰의 주체인 생존자는 특수한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하지만 행위의 최종 목적인 '생존' 그 자체는 성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가 강요하는 '생존'은 타인들과의 가차 없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공격적인 함의를 내포하며, 이웃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생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타자란 공존의 파트너가 아니라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생존자가 추구하는 궁극적 삶의 형식으로서의 생존은 '좋은 삶(good life)'이 아니라 '삶 그 자체(sheer life)'다.[171] 결과적으로 생존주의는 스노비즘이나 동물화된 삶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김홍중, 2009:189).

베스트셀러는 사람들이 당위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믿는 도서나 무엇을 읽는지 타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도서가 아닌 대중 독자들이 실제로 읽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도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Rovenpor et al., 2016:415). 철학, 역사학, 문학 등을 포괄하며 본질적으로 성찰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인문학(송현 · 안관수, 2013; 양은아, 2010; 양은아,

[171] 이는 사회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함의를 가진다. '소셜 게노믹스' 연구들에 따르면 의미 지향적인 '좋은 삶'을 꾸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쾌락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활동 패턴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uer, 2022:43-45).

2020) 도서조차 성찰성과 비판 정신을 상실한 채 단편적 지식 축적을 통한 나르시시즘적 문화 자본 경쟁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모습은 Liessmann(2018)이 말한 우리 사회의 몰교양화를 함의한다.

경쟁 상황과도 같은 지적 대화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독자들과 "지식인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독자들 사이의 간극은 '넓고 얕은 지식'을 계기로 좁혀질 수도,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비판적 분석력과 반성적 능력의 마비는 민주 사회의 미래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Wolf, 2019:295-296). 채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는 독서가 자기계발 담론과 연결돼서 의무감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의하면서 책을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세계, 종교, 인간과 진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기 때문에 인문학이 시작된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학벌이나 외모처럼 차별을 만들기 위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고 생각하거든요."[172] (땡스기브, 2017/8/8)

"내용이 얕아서 인문학 본연의 역할인 성찰과 사색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기도 했다.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과 교양은 교수나 철학자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지식에 서열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고, 인문학을 생산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다양해져야 한다"[173] (한겨레21, 2015/3/10)

채사장은『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의 "준비 운동"에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선입견을 멈추는 태도"를 의미하는 '판단 중지'를 선언한 뒤 에필로그에서도 첫 번째로 "세상의 목소리를 의심해야 한다. 가족, 학교, 사회, 국가, 종교, 미디어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신을 주저앉히려 할 때, 당당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채사장, 2019).

---

[17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넓얕> 채사장 -보통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권합니다". 땡스기브 블로그. 2017년 8월 8일. 2022년 5월 10일 검색. https://m.blog.naver.com/tgive/221069284721

[173] 한겨레21. "평범한 이들을 위한 얕은 지식의 전당". 2015년 3월 10일. 2022년 5월 10일 검색.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의 프롤로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세렝게티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사자와의 대면에 대비해서 이 책을 읽어두도록 하자”고 제안한다(채사장, 2020a).

결국 한 리뷰의 제목과 같이 ‘지대넓얕’ 시리즈에 대한 독서는 한 명의 사람인 “채사장과의 지적 대화”[174]일 수밖에 없다. 채사장이 말하듯 학자적 태도로 선입견을 배제한 채 세상을 바라보며 인문학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을 가진 도서에 대한 독서가 요구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환기하는 인문학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문학의 대중화가 실제로는 확장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 권력이 개인에 대한 장악력을 강력하게 높여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양은아, 2020).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식과 상상력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살아가는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 빈도 등 국민 독서실태는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실정임.” [175]

이때 언급되는 상상력은 기계적 학습과 대비되는 성찰 및 사유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큐레이터에 의지하지 않고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직접 큐레이팅을 하며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판적 사유 및 성찰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지식의 선별자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만약 독서가 단순히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칠 경우 남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큐레이팅된 지식과 큐레이터뿐일 것이다. 그리고 다수가 깊은 사유와 성찰을 배제한 채 충분히 ‘안다’고만 생각해 인지적 안일함에 빠진다면 이는 사회적 다양성의 감소와 소외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민주 사회를 위협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 사회의 인문학 대중화와 함께 발생한 '지대넓얕' 현상을 통해 본

---

[174] http://blog.yes24.com/document/12180519 (2020.3.6)
[175] 문화체육관광부. 2021.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의 단면은 자기-목적적 성찰성보다는 도구적 성찰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대변되는 효율적 정보 습득은 치열한 자기계발 경쟁으로 인해 시간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현대인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최선의 전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지향점 자체가 깊고 넓은 지식에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이동하고 맥락이 사라지는 맹목적 정당성을 띠며, 이것이 심층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의 전면적인 배제로 이어진다면, 전술한 것처럼 사회적 다양성의 감소와 소외를 경유해 다가오는 민주 사회의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V. 결론

‘독서의 위기’와 ‘인문학의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인문학 신드롬’이 일었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대 중반 베스트셀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탄생했다. 저술 경험이 없었던 저자에 의해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인문서의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지대넓얕’으로 약칭되는 사회 현상이 우리 사회에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독서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베스트셀러를 ‘상황적 형성물’로 보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지대넓얕’ 현상을 텍스트의 구성 방식, 마케팅 전략, 독자들의 수용 방식,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의 측면으로 나눠 고찰하였다. 먼저 Ⅱ장에서 살펴본 국내 베스트셀러의 변화 경향에 따르면 지난 40년간의 국내 베스트셀러는 시기별로 특징적이었던 장르에 따라 각각 1980년대에 해당하는 ‘시 문학의 시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해당하는 ‘자기계발의 시대’, 2010년대~~현재에 해당하는 ‘인문학의 시대’로 구분되었다.

시 문학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는 ‘문학과 사회의 상관관계’라는 거대 담론과 ‘사랑’ 담론으로 특징지어진다. 종교적 색채를 띠는 도서와 철학서, 이념 도서, 역사 도서들이 주로 추상성이 높은 시의 형태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당면한 현실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시대, 세상을 바라보는 도서들이 다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1980년대는 전반적으로 인문학적인 사유와 연관성이 큰 도서들이 베스트셀러를 석권했던 시대였다.

자기계발의 시대에 해당하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는 ‘자기계발’ 담론, 그리고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힐링’ 담론 등으로 설명된다. 학습서와 자기계발서, 경제경영 도서와 같은 실용서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시, 아동, 인문·사회 분야에 속한 베스트셀러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맹목성을 띠게 된 ‘성공’ 담론과 함께 심화되었다. 자기계발의 시대는 실존적인 사유와 성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당면한 현실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식적 조언을 건네는 도서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시기였다.

인문학의 시대에 해당하는 2010년대 이후에는 ‘인문학의 위기’

담론에 대한 대응 담론적 성격을 가지는 '인문학' 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 힐링 인문학으로 시작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2010년대 중반 정점에 이르렀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이 같은 인문학 신드롬에 힘입어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출간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인문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던 해당 시기 베스트셀러 장르 구성의 성격은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의 비중이 높았던 1980년대보다는 오히려 실용서 위주였던 1999년~2009년의 구성과 더 유사했다. 지난 40년간의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담론은 '자기계발' 담론이었다.

'지대넓얕'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 기여한 특징적 성공 요인들은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와 '직관적이고 솔직한 마케팅',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 충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문형 자기계발서를 표방한 '지대넓얕' 시리즈의 텍스트는 학습서 형식의 구성을 띠고 있었다. 선별화 작업을 통해 '단순하게 구조화'함으로써 텍스트의 압축성과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솔직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마케팅 또한 '지대넓얕' 시리즈에서 특징적이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마케팅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제안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리뷰 분석 결과 이 모든 기획을 통한 니즈의 충족은 공감형 문구 등을 사용해 독자의 눈높이와 일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독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지대넓얕' 시리즈의 놀라운 상업적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에 IV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대넓얕' 시리즈가 출간된 2010년대 중반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지대넓얕' 현상의 대두가 갖는 연관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지식 가게의 사장'인 저자 채사장은 2000년대 이후 정보의 과잉, 특히 2010년대 이후 여러 분과 학문을 매우 넓게 포괄하는 특성을 가진 인문학 시장의 확대에 따른 큐레이팅의 필요성 증가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인문서 시장에서 효율적인 큐레이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문학 신드롬으로 증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록 저자가 저술 및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능력이 뛰어나다면 원고가 출간될 유인이 커졌던 것이다. 이때 저자가 가진 사교육 논술 강사로서의 배경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들이 수상 경력과 같은 문화적 신성함의 지표보다 저자의 유명세와 같은 시장 논리에 의해 더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하고(Verboord, 2011), 인문학 시장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상황(박치완·박성준, 2016; 천정환, 2015)에서 출간 전 채사장이 진행하던 동명의 팟캐스트는 예비 독자의 확보를 통한 도서의 출간과 초기 마케팅을 도왔고 도서의 성공은 다시 팟캐스트 청취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는 채사장이 출연한 여러 방송들과 함께 '지대넓얕' 현상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문학 신드롬과 함께 인문학적 지식이 스펙이자 문화 자본으로 인식되던 2014년, '인문학'을 다루는 '지식 교양' 팟캐스트가 경제·경영 분야의 자기계발서를 출간하던 출판사의 관심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정책들과 함께 대중화 단계를 거치며 기업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인문학은 본연의 성찰성을 상실한 채 넓고 얕은 단편적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기계발 수단으로서의 '스펙'이자 '문화 자본'으로 변모했다. 인문학을 전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의 깊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 '지대넓얕' 시리즈의 성공 요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것들이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세한 자기계발 담론과 인문학 신드롬이라는 기후 조건하에서 인문 교양의 자본화라는 토양의 양분을 공급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인문학 신드롬과 인문 교양의 자본화, 팟캐스트와 미디어의 영향력, 고효율의 압축적인 텍스트, 직관적이고 솔직한 마케팅 전략,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니즈 충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적 사슬의 연쇄를 통해 '우리 시대 대표 인문 교양서'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철학, 역사학, 문학 등을 포괄하며 본질적으로 성찰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인문학은 '액세서리'가 아니다(김지수, 2021:107). 그러나 인문학 신드롬의 정점에서 상징적으로 탄생한 '지대넓얕' 현상은 인문서조차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국 사회의 실체적인 현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근본적으로 IMF 경제 위기 이후 '성공' 담론이 맹목성을 띠고(권오헌, 2006) '생존주의 레짐'이

등장하며(김홍중, 2017) ‘도구적 성찰성(김홍중, 2009)’이 모든 것을 잠식해감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생존주의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능동성을 요구하는 깊은 사유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큰 독서보다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나 웹 서핑이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높은 밀도를 지니는 학습서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시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자기계발 경쟁으로 시간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독자들이 내리는 최선의 선택에 해당한다. ‘지대넓얕’ 시리즈는 인문학 입문서로서 독자들을 확장된 지적 탐구로 이끄는 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대넓얕’ 시리즈에 대한 독서는 한 명의 사람인 “채사장과의 지적 대화”이며 학습서는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아닌 ‘암기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저자의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비판적 분석력과 반성적 능력의 마비는 민주 사회의 미래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Wolf, 2019:295-296). 만약 다수가 깊은 사유와 성찰을 중단한 채 인지적 안일함에 빠진다면 이는 사회적 다양성의 감소와 소외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민주 사회를 위협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현상은 복합적이며 중층적·다층적인 발생 양상을 가지기에 성공 요인과 같은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출판사와 독자 등을 직접 인터뷰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탓에 도서의 발행과 연관을 가지는 출판 산업의 구조적 변화(박석인, 2015)를 고려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거시적인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 이면에 가려진 도구적 성찰성의 측면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과 같이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사회 문화 현상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Bauer, Joachim. 2022. 『공감하는 유전자 :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하여』.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Liessmann, Konrad Paul. 2018. 『몰교양 이론 : 지식사회의 오류들』.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Wolf, Maryanne. 2019. 『다시, 책으로 : 순간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 어크로스.

강정찬. 2015. "창의·융합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방법 및 모형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53: 713-42.

고용남·이명우. 2011.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2(2): 489-504.

권오헌. 2006. "IMF 이후 성공학 서적의 유행과 출판,독서 시장". 『한국사회』 7(2): 91.

기혜선·정옥년. 2021. "국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특징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독서연구』 58: 265.

김가연·김효은. 2015. "20세기 초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서양인에 의해 개발된 4가지 학습서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9(3): 565-91.

김건순·김남진·오세일. 2017. "한국 대학생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24(2): 259-94.

김경숙. 2005.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과 독서의 사회사 -1980~1990년대 베스트셀러 시의 '사랑'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 201.

김기태. 1996. "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 1990년대의 순위발표 양상을 중심으로". 『출판연구』 8: 351-71.

—. 2015.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 『한국문예창작』 14(2): 225-54.

김무엽. 2015. "베스트셀러의 변화양상과 독서 경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선남. 2008. "뉴미디어 시대 한국 독서문화의 특성". 『한국출판학연구』 34(2): 45-70.

—. 2017. "소비자의 도서구매 결정요인에 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 연구』 38(38): 5-19.

김성우·엄기호. 2020.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따비.

김성은. 2017. "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 역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3(1): 33-56.

김수혜. 2019.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탐색한 한국 중년층의 문해력 격차 연구: 독서활동 및 비형식 학습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3): 1-35.

김유선. 2017.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활동에 나타난 집단지성 양상".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 2021. 『(EBS) 당신의 문해력 : 공부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힘』. 고양 : EBS BOOKS : 한국교육방송공사.

김정숙. 2012.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이중언어학』 49: 87-109.
—. 2015. "한국 독서정책의 현황과 방향". 『한국출판학연구』 41(1): 5-22.
김종엽. 2010. "자기계발을 넘어선 자유의 의지를 위하여". 『경제와사회』 (87): 292-99.
김지수. 2021.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파주 : 열림원.
김충남. 2007. "베스트셀러의 조건". 『외국문학연구』 27: 57-76.
김혜정. 2010. "기획 주제-한국 독서문화와 비평적 읽기 : 대중독자의 독서 양상과 비판적 읽기 필요성". 『독서연구』 24: 51.
—. 2016. "독서 관련 학문의 동향과 독서교육: 독서교육 이론의 변화와 쟁점". 『독서연구』 40: 9.
김홍중. 2008. "스노비즘과 윤리." Pp. 50-70: 나남출판사.
—.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0(14)』: 173-212.
—. 2017. "생존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사회사상과 문화』 20(4): 237.
박석인. 2015. "국내 소설 위기론에 관한 문학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박인기. 2006.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과 독서정책". 『독서연구』 16: 335.
—. 2014. "독서정책의 방향과 과제 -독서의 사회,문화적 작용과 정책화". 『독서연구』 31: 9.
박정길. 2006.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3-20.
박찬익. 2000. "베스트셀러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출판연구』 12(1): 293-304.
박치완·박성준. 2016. "인문학 분야 베스트셀러 트렌드 분석 (2006년～2015년)".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 5(1): 133-61.
박홍재·김선남. 2006. "한국 베스트셀러 집계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51(51): 63-94.
방미영·이건웅. 2020. "독서환경의 변화와 독서진흥 방안 연구 : 대학생의 독서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6(1): 5-28.
변우열. 2016.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7-50.
손정훈·김민규. 2016. "인문학 현상과 인문학 진흥정책 (2007~2014)". 『글로벌문화콘텐츠』 23(1): 41-59.
송현·안관수. 2013. "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 『디지털융복합연구』 11(11): 783-93.
신명선. 2002.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국어교육학연구』 14(14): 235-64.
안선희. 2009. "한국 출판의 베스트셀러 다양성에 관한 연구: IMF 이후 10년 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은아. 2010. 『인문학과 평생학습』. 파주 : 교육과학사.
—. 2020. "인문학 소비시대 대중인문학 열풍과 과잉소비에 대한 비판적 탐구". 『Andragogy Today』 89: 55-91.
엄혜진. 2016.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2): 31-69.
여신·김바로. 2020. "우리는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영화 〈82년생 김지영〉 리뷰 분석". 『인문콘텐츠』

(58): 77-103.
오미영·박찬빈·고영건. 2010. "긍정적 환상 신드롬에 대한 분석 -『시크릿』의 비밀". 『담론201』 13(1): 123-50.
오지현·차영화·김서현·박해란·최샛별. 2021. "수평적 취향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구별짓기: 독서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2): 183-244.
원지현. 2016. "팟캐스트 이용자의 미메시스와 유희에 대한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유범상·이현숙. 2015. "인문학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인문학논총』 38: 165-94.
유영미. 2015.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유재성. 2015. "초등 수학 참고서의 특징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윤지영. 2014. "자기계발의 집단주의적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3): 106-45.
이범준. 2010.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과 젊은 직장인들의 수용과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임자. 1993. "베스트셀러의 요인에 관한 연구". 『출판연구』 5: 285-303.
이창희. 2014. "독서 진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행선·양아람. 2017.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 42-94.
임병희. 2018. "문학과 문학사업 -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통해 본 마르틴 발저의 『어느 비평가의 죽음』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72(72)』: 335-54.
장민우. 2013. "한국사회 '힐링(Healing)' 담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학위논문.
장희정. 2007. "자기계발의 시대".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전상진. 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5(1): 103-40.
정경영. 2015. "생각한다 :“지대넓얕”시대를 생각한다". 『음악과 민족』 49: 5.
정옥년. 2018. "창의성 관련 인문 독서 경험의 효과". 『독서연구』 0(49): 59-80.
정일권·조윤경·채영길. 2014. "국내외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169-90.
조도현. 2000. "베스트셀러 변화의 추이와 그 맥락에 관한 연구". 『출판연구』 12(1): 305-10.
조주현. 2017.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 『젠더와 문화』 10(1): 7-43.
진정일. 2015.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민인문강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1: 687.
채사장. 201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세계 편』. 서울 : 한빛비즈.
—. 2015.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너머 편』. 서울 : 한빛비

즈.
—. 2019.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0 : 지혜를 찾아 138억 년을 달리는 시간 여행서』. 서울 : Whale Book.
—. 2020a.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역사·경제·정치·사회·윤리』. 서울 : 웨일북.
—. 2020b.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서울 : 웨일북.
천정환. 2015. "시평 : 인문학 열풍에 관한 성찰과 제언: 시민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안과밖』 38: 100.
최인자. 2008. "문학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427-50.
한기호. 2011. 『베스트셀러 30년 : 우리가 사랑한 300권의 책 이야기』. 교보문고.
한준·김수정·남찬섭·이윤석·심재만·박명준·전상진·최종렬·김백영·임동근·조은주. 2018. 『외환위기 이후 20년 : 한국 사회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 서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허경은. 2000. "독서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독자". 『프랑스학연구』 19: 197-218.
황윤정. 2019.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학 독서 교육 내용 연구". 『문화와 융합』 60: 901-38.

국외 문헌

Atkinson, Will. 2016. "The Structure of Literary Taste: Class, Gender and Reading in the UK". *Cultural Sociology* 10(2): 247-66.
Barrow, John D. 1991. *Theories of everything : the quest for ultimate explanation*. Oxford [England] : Clarendon Pres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Barton, David, and Mary Hamilton. 1998. *Local literacies*. Routledge.
Bourdieu, Pierre. 1998. *On television*. New York : New Press : Distributed by W.W. Norton.
Chang, Kyung-Sup. 2019. *Coping with the "IMF Crisis" in the Developmental Liberal Context*.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Colbjornsen, Terje. 2014. "The construction of a bestseller: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to the case of the Fifty Shades trilogy as an eBook bestseller". *Media, culture & society* 36(8): 1100-17.
Cook, Guy. 1992. *The discourse of advertising*. Routledge.
Dahan Golan, Danielle, Mirit Barzillai, and Tami Katzir. 2018. "The effect of presentation mode on children's reading preferences, performance, and self-evaluations". *Computers and education* 126: 346-58.
Fairclough, Norman. 2003. *Analysing discourse :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Routledge.
Flyvbjerg, Bent. 2010.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219-45.
Gray, William S. 1953. "Summary of Reading Investigations July 1, 1951 to

June 30, 1952".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Washington, D.C.)* 46(6): 401-38.
—. 1954. "Summary of Reading Investigations: July 1, 1952 to June 30, 1953".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Washington, D.C.)* 47(6): 401-40.
Griswold, Wendy, Terry McDonnell, and Nathan Wright. 2005. "Reading and the Reading Cla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1): 127-41.
Harris, Theodore L., Wayne Otto, and Thomas C. Barrett. 1969. "Summary and Review of Investigations Relating to Reading, July 1, 1967 to June 30, 1968".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Washington, D.C.)* 62(7): 291-312.
Harris, Theodore L., Wayne Otto, Thomas C. Barrett, Sandra Cantz, and Robert Barganz. 1970. "Summary and Review of Investigations Relating To Reading, July 1, 1968 to June 30, 1969".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Washington, D.C.)* 63(7): 290-308.
Hawking, S. W. 2010. *The Grand Design*. New York : Bantam Books.
Hetenyi, Gabor, Attila Lengyel, and Magdolna Szilasi. 2019. "Quantitativ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Using voyant tools to investigate the sales-marketing interface". *Journal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3): 393-404.
Keuschnigg, Marc. 2015. "Product success in cultural markets: The mediating role of familiarity, peers, and experts". *Poetics (Amsterdam)* 51: 17-36.
Kraaykamp, Gerbert, and Katinka Dijkstra. 1999. "Preferences in leisure time book reading: A study on the social differentiation in book reading for the Netherlands". *Poetics (Amsterdam)* 26(4): 203-34.
Larsson, Jörgen, and Christer Sanne. 2005. "Self-help Books on Avoiding Time Shortage". *Time & society* 14(2-3): 213-30.
Leonard-Barton, Dorothy. 1990. "A Dual Methodology for Case Studies: Synergistic Use of a Longitudinal Single Site with Replicated Multiple Sites". *Organization science (Providence, R.I.)* 1(3): 248-66.
Liu, Ziming. 2005. "Reading behavior in the digital environment: Changes in reading behavior over the past ten years". *Journal of documentation* 61(6): 700-12.
Marquis, Nicolas. 2015. "Allowing for Social Desirability in Reception Studies: The Case of Self-help Book Readers". *Bulletin de méthodologie sociologique* 127(1): 58-71.
—. 2018. "Taking One's Responsibilities While Facing Adversity: A Balanced Analysis of Self-Help Books Reading".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4(2): 137-53.
McGee, Micki. 2012. "From Makeover Media to Remaking Culture: Four Directions for the Critical Study of Self-Help Culture". *Sociology compass* 6(9): 685-93.
McTaggart, John M. E. 1927. *The Nature of Existence Volume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rriam, Sharan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Paltridge, Brian, and Ken Hyland. 2011. *Continuum companion to discourse analysis*. Continuum.

Radway, Janice A. 1991. *Reading the romance :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Rouse, Joseph. 2007. *Practice theory*. Amsterdam : North-Holland.

Rovenpor, Janet, Richard E. Kopelman, Ann Cohen Brandwein, Phillip Quach, and Marc Waldman. 2016. "The Best-Seller as an Indicator of Societal Narcissism". *Society (New Brunswick)* 53(4): 414-21.

Stake, Robert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Street, Brian V. 1984.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uart, Gina Anne. 2006. *Exploring the Harry Potter book series: A study of adolescent reading motivation*. PhD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Subrahmanyam, Kaveri, Minas Michikyan, Christine Clemmons, Rogelio Carrillo, Yalda T. Uhls, and Patricia M. Greenfield. 2013. "Learning from Paper, Learning from Screens".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Behavior, Psychology and Learning* 3(4): 1-27.

Sweeney, Megan. 2010. *Reading is my window : books and the art of reading in women's prisons*.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2012. *The story within us: Women prisoners reflect on read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Thompson, John B. 2012. *Merchants of culture : the publishing busi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United Kingdom : Polity Press.

Thumala Olave, María Angélica. 2017. "Reading matters: Towards a cultural sociology of reading". *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6(3): 417-54.

—. 2020. "Book love. A cultural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attachment to books". *Poetics* 81.

Verboord, Marc. 2011. "Market logic and cultural consecration in French, German and American bestseller lists, 1970-2007". *Poetics (Amsterdam)* 39(4): 290-315.

Whited, Lana A. 2002. *The ivory tower and Harry Potter : perspectives on a literary phenomenon*. Columbia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Yin, Robert K. 1984.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s.

—. 2003.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Youna, Kim.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London, England : Routledge.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best-selling phenomenon of humanities book in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in the 2010s

- Focusing on the『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박찬준(Park Chanju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humanities syndrome' and the 'popularity of a book called 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that happened in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in the middle of the 2010s were possible in the context of a steep decrease in the reading rate and the onset of a crisis in the humanities. It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book written by an unknown author with no writing experience or prizes becoming the fourth most-selected book series among Korea's 20 best-selling yearly bestsellers of all time.

This study explores the popularity of the bestselling 『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henceforth 'Broad

and Shallow') 』 series as a 'situational 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ading as a social practice. Using the methodologi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a case study on the phenomenon of "broad and shallow" was performed.

In Chapter II, by examining the genre of bestsellers, the 1980s, the late 1990s–2000s, and the 2010s–present were classified as the age of poetry, the era of self–development, and the era of the humanitie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se periods, the shifting bestselling tendencies were analyzed. At the time of the birth of the 'Broad and Shallow' series, the composition of the bestselling genre resembled that of the years 1999–2009, when practical books were prominent, rather than that of the 1980s.

In chapter III,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engths of the 'Broad and Shallow' series compared to other books in the same field, focusing on the text composition and the publisher's marketing strategy. Furthermore, the acceptance of readers is examined through review analysis.

In a circumstance when it is necessary to absorb more than a certain quantity of information in order to pass the exams, which represents a competition for survival, the study handbook with dense text still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media. The 『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series followed the format of study handbook.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the 'Broad and Shallow' series were able to be maximized by 'simple structuring'. The success of the 'Broad and Shallow' series was accomplished by the selected knowledge by the author Chae Sajang such that it could be easily absorbed, as opposed to just listing fragments of information. The owner of the knowledge store, the author Chae Sajang, decides which piece of

generated information to place on which shelf line and in which moving line.

The marketing for 'Broad and Shallow' series was promoted in a consistent two-track manner, motivating to possess humanities literacy in order to gain social recognition without being humiliated and recommending this book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delivering this humanities literacy. And it was stated in terms as straightforward and intuitive as the book's title.

As a result of executing 'degree centrality analysi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on book buyer reviews, the adjective 'easy', which ranked 7th in the frequency analysis, appeared in 1st place in the rank of degree centrality analysis, surpassing adjectives such as 'broad' and 'shallow' in the book title. Indeed, an examination of book buyer reviews revealed that the needs of readers within the present sociocultural context were fulfilled according to their level through empathetic phrases, etc. Read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i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is was a project that suite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capitalization of humanities and liberal arts within the dominant discourse on self-development.

In Chapter IV,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lteration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regarding to the humanities and the emergence of the 'Broad and Shallow' phenomenon is investigated. The "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series was produced in a context where self-improvement discourse, which is more concerned with practicalities than with thought and reflection, predominated.

Since 2010, as a consequenc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opular humanities led by the government, the humanities, which

received attention from companies and the media, have been transformed into capitalized 'specs' and 'culture capital' in the form of broad and shallow knowledge. Reading humanities books has become a social practice that provides incentives to acquire capital.

With the rise of the popular humanities market, the "period of curation" has formed in the humanities consumer market. Chae Sajang, the 'owner of a knowledge store' and author of the 'Broad and Shallow' series, acts as a curator who selects a broad variety of humanities knowledge for inclusion in one or two books. Publishers have a greater incentive to publish manuscripts, even if the writers do not have a background in writing, in order to meet the demand resulting from the growing popularity of the humanities at a time when 'curating' is more essential than ever in the humanities market.

The expansion of media influence also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Prior to publication, Chae's podcast of the same name entitled "Knowledge and Liberal education" helped secure potential readers for the book's publishing and early promotion, and the book's popularity led to a rise in podcast listeners, producing a synergistic effect. This was a crucial influence in the continuation of the "Broad and Shallow" phenomenon, along with various broadcasts in which Chae Sajang appeared.

In conclusion, through a situational chain articulating with the humanities syndrome, the capitalization of liberal arts, the influence of media represented by podcasts, high-effective and dense text, intuitive and honest marketing strategy, and the satisfaction of the needs of readers at their level, 『Broad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was able to become a "representativ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book of our time".

Concurrently, it is probable that the 'Broad and Shallow' series would serve as a humanities textbook. In addition, there is a risk that the author's viewpoint would be conveyed unilaterally, since readers may see this book as an object that they should memorize. Instrumental reflexivity makes it feasible to explain the decrease in reading rates, the crisis in the humanities, as well as the 'broad and shallow' phenomenon emerged at the apex of humanities syndrome. In essence, the exclusion of deep thought and reflection may threaten the future and the viability of a democratic society.

Keywords : Broad and Shallow, Bestseller, Humanities, Popularity of humanities, reading tendency, sociology of reading
Student Number : 2020-28218